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東 煥

韓 國 近 代 小 說 에 나타나는  
家 出 모 티 프 研 究

A study on a motive of leaving-home appeared  
in the Korean modern novels

2001年 5月 30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國 語 國 文 學 科

國 文 學 專 攻

任 滢 模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東 煥

韓 國 近 代 小 說 에 나타나는  
家 出 모 티 프 研 究

A study on a motive of leaving-home appeared  
in the Korean modern novels

위 論 文 을 文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1年 8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國 語 國 文 學 科

國 文 學 專 攻

任 滢 模

任滢模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 年 8 月 日

審査 委員長 (인)

審査 委員 (인)

審査 委員 (인)

# 目 次

I. 서론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사 검토 .....	3
3. 연구 방법론 .....	5
II.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가출의 사회 · 역사적 동인 .....	22
1. 전환기적 현실과 소명의식의 발현 .....	27
2. 근대적 개인의 자아의식의 대두 .....	32
3. 사회문제의 현실인식의 대두와 변혁의지 .....	36
4. 전망의 상실과 전망의 제시 .....	42
III. 가출 동기와 결말의 결합양상에 따른 유형화와 가치지향 .....	45
1. 조혼과 강제혼인의 거부와 반봉건성 .....	48
2. 물질 지향성과 편입적 세계관 .....	57
3. 종교적 갈등과 근대적 개인의 면모 .....	63
4. 성찰과 모색을 위한 가출과 자아성장 .....	70

IV. 가출 모티프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	75
1. 한국 근대소설과 가출의 내적 형식화.....	75
2. 가출 및 외출 모티프를 통해 본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상관관계.....	77
3.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의 의미.....	83
V. 결 론.....	87
■ 參考文獻.....	89
<ABSTRACT>.....	95

# I. 서 론

## 1. 문제 제기

가출(家出)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집'이라는 전제가 짙게 깔려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초석이 '집'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개인은 어디까지나 사회 속의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집'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거부이며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심적 고통의 산물이다. 반대로 귀향은 그러한 질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귀향은 그것이 이향이든 탈향이든 모두가 가출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우리의 근대소설에서 귀향 모티프는 귀향소설<sup>1)</sup>이란 항목을 만들만큼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한국문학사에서 귀향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소설 제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고향이란 언어·관습·전통 등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들과의 공동체적 장소이며 그 실재에 있어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근원지이며, 또 자기 동질성에 대한 물화적(物化的) 은유이다.<sup>2)</sup> 우리와 같은 농경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향이란 실체는 직접적 체험의 소산이다. 고향이 자기 정체성의 형성 공간이며, 귀향이 자기 동질성으로의 귀환<sup>3)</sup>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의 중요성은 결코 평가절하 할 수 없다. 결국 귀향이란 애초에 고향을 기반 한 가출이 없었다면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기에 귀향은 항상 가출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문학사에서 귀향이 나름대로 주목을 받아온 반면<sup>4)</sup> 상대적으로 가출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귀향은 소설이다 라는 도식

---

1) 김만수는 “1950년대 귀향소설 연구”라는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들처럼 소설에 있어 '귀향'의 의미를 다루면서도 직접적으로 '귀향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만수, 문학의 존재영역, 서울 : 세계사, 1994.

2) 전광식, 고향,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9, pp. 25~36.

3) 위의 책, p. 144.

이 가능했다면 가출 자체가 소설이다 하는 도식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귀향이 주는 긍정성에 비해서 가출이 도정하는 부정성이 초래한 결과라고 본다. 이는 문학을 생산하는 주체나 소비하는 주체 모두에게 그리고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저변에 깔린 무의식의 결과라고 본다. 터전, 즉 고향이라고 하는 사고를 중시하는 우리네 문화는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그 자체에서 풍기는 부정적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대로 귀향이라는 의미는 타향에서의 어떠한 방탕도 다 용서될 수 있는 소도 와도 같은 것이기에 그 무게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만든다. 물론 여기서의 고향은 구체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공간적 개념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인 공간을 찾아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어 졌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공간을 떠나는 것 또한 똑같은 무게의 고통과 아픔이 가출자의 심리 속에는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점에 착안해 지금까지 중요하게 취급되어진 귀향 모티프와 더불어 그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가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미흡함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 소설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가출 모티프 소설을 통시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본고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근대소설에서 나타나는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을 추적함과 동시에 소설 속 주인공들이 목적하는 가출 속에서 가

---

4) 한국문학사에서 '귀향'은 주로 20·30년대 카프문학과 1950년대 전후문학과 관련성 속에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만수, "1950년대 귀향소설 연구", 문학의 존재영역, 세계사, 1994.

김연숙, "1920~30년대 소설에 나타난 '귀향'양상 연구:염상섭, 이태준, 이기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석사), 1994.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서울 : 예하, 1997.

이대규, "한국 근대 귀향소설 연구", 전북대학교(석사), 199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1945~1990), 서울 : 민음사, 1991.

이정숙, 失郷小説研究, 서울 : 한샘, 1989.

서경석, "한국 경향소설과 '귀향'의 의미", 한국학보, 통권48호, 일지사, 1987.

출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져야만 하는 하나의 내적 형식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 2. 연구사 검토

한국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 소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문학연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가출이 다루어지기보다는 귀향을 다루기 위해 가출이 언급되고, 실향을 다루기 위해 가출이 언급되는 등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 가출은 연구의 목적을 위한 부차적인 토대로써만 존재했다. 앞으로 살펴 볼 연구들 또한 가출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드물다.

서석준은 『현대소설의 아비상실』이라는 연구에서 우리의 근·현대문학은 가족 단위나 민족 단위에 있어 <아비결손> 혹은 <부상실>이란 것이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그 극복이란 아비찾기의 과정이라는 논의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간혹 가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는 먼저 「탈출기」를 논하면서 「탈출기」에서 보이는 가출은 새 사회 건설의 표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대하』와 「홍길동」의 가출을 논의하면서,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세계인 봉건적 세계에 대한 거부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혈의 루」나 『무정』에서 보이는 ‘김관일’, ‘옥련’, ‘이형식’, ‘영채’, ‘선형’ 등이 천리타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던 것은 이미 무기력해졌거나 망실된 조선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적 아비찾기의 여정인 ‘집 떠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하』와 「홍길동」의 가출을 봉건적 질서에 대한 거부라는 똑같은 맥락으로 파악하는 한편으로 그 차별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5)</sup>

이정숙은 『실향소설연구』에서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발표된 소설들을 논하면서 이때의 실향의 양상을 고찰했다. 당대 실향은 고향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기보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극도의 궁핍함

5) 서석준, 현대소설의 아비상실, 서울 : 시학사, 1992.

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본격적인 실향의 양상을 논하기에 앞서 당대에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형상화한 소설들을 다루고 있다. 나도 향의 『지형근』을 비롯한 20·30년대 다수의 작품들에서 고향을 등지는, 일면 가출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작품들을 거론하고 있다. 가출이 주가 아니고 실향을 목적했던 연구이었던 만큼 20·30년대 다수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대에 있어서 풍부한 ‘집 떠남’을 볼 수 있는 연구이다.<sup>6)</sup> 마찬가지로 홍이섭 또한 “1920년대 식민지적 현실”이라는 논문에서 20년대가 안고 있는 고향 떠남과 실향의 삶을 최서해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sup>7)</sup> 또한 이대규도 “한국 근대 귀향소설 연구”라는 논문에서 1920년대부터 50년대 이후까지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귀향소설을 논의하고 있다.<sup>8)</sup>

지금까지의 살펴 본 연구들은 가출이 직접적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 다음에 살펴 볼 논의들이야말로 본고가 목적하는 바와 조금의 유사성을 갖는다.

김동환은 “<고향>의 내적 형식”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고향』을 그 기조로 하면서 여타 30년대 후반 장편소설들인 『대하』, 『봄』, 『탑』 등의 소설을 같이 언급하는 가운데 이 소설들에서 보이는 가출의 주요 동기가 반봉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말한다. 본 논문은 본고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가출 모티프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한 논문이다. 또한 그는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라는 논문에서는 『대하』, 『봄』, 『탑』 등의 작품을 언급하면서 그 속에서 형상화된 풍속에 대한 개인의 대응 양상이 일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9)</sup>

끝으로 채호석은 『대하』를 논하면서 작품 『대하』 내에서 보이는 ‘형걸’

6) 이정숙, 앞의 책.

7) 홍이섭, “1920년대 식민지적 현실”, 임형택 · 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6.

8) 이대규, 앞의 글.

9) 김동환, 한국소설의 내적 형식, 서울 : 태학사, 1996.

의 가출이야말로 성숙의 형식이자 미성숙을 밝히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칸트의 성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형걸’의 가출을 논의하고 있다.<sup>10)</sup>

이 정도의 연구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가출 모티프 자체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김동환과 채호석을 빼면 가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들은 아니다. 또한 직접적인 연구라고 해도 그것의 범위나 작품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근대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가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3. 연구 방법론

1933년 11월부터 1934년 9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기영의 소설 『고향』에는 소제목으로 ‘출가(出家)’라는 장이 있다. 이 장에서 보이는 출가(出家)는 분명 가출(家出)에 해당하나 작자는 버젓이 ‘출가(出家)’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출가(出家)란 엄연히 불교에서 ‘번뇌에 찬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나서는 일’<sup>11)</sup>로 정의되는 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출가(出家)의 의미가 당시만 해도 현재의 가출(家出)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다.<sup>12)</sup> 본래 가출(家出)이란 단어는 조선에는 없는 것이었다. 가출(家出)의

---

10) 채호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서울 : 소명, 2000.

11) 한국세계대백과사전, 서울 : 학원출판공사, 1993, p. 189.

12) 이기영은 ‘출가(出家)’를 단순히 ‘집을 나가다’라는 단순의미로 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여타의 제목들에서 이러한 한자 조합 방식을 즐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작품 『고향』에서 보이는 소제목인 ‘再逢春’, ‘苦肉計’ 등과 소설 『新開地』의 제목 자체를 비롯해서 『봄』에서의 ‘話中話’ 등이 모두 그러한 한자 조합방식이다. 이러한 조합 자체가 작가 이기영만의 소산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의 소설 『鬚釧』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한자 조합 방식을 통해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그가 ‘출가(出家)’를 단순의미로 썼다고 해도 본고가 제시하는 가출(家出)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분명 ‘안갑숙’의 가출(家出)은 작품 말미에서 불교적 의미인 ‘출가(出家)’로 그 의미가 격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원은 김민수에 따르면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다.<sup>13)</sup> 당시만 해도 조선에는 '출가(出家)'라는 단어만 있었다. 당시 우리의 국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46)을 보면 '출가(出家)'라는 단어는 있어도 '가출(家出)'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sup>14)</sup> 이기영의 『고향』의 연재가 완료된 것이 1934년이므로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 '가출(家出)'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또한 평양에서 출판된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출가'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현재의 '출가(出家)'와 '가출(家出)'의 의미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가출(家出)'에 해당하는 예로 이기영의 『고향』의 일절을 인용하고 있다.<sup>15)</sup> 또한 이승녕의 『최신국어대사전』(1998)에서도 '가출(家出)'이란 단어는 빠져 있다.

가출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관점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위장이며, 기발한 모험으로 나아감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sup>16)</sup> 이때 여기서의 주체인 청소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집을 나가는 것은 모두 가출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출가 또한 가출의 일종이다. 출가가 목적 지향형이라면 일반적인 가출은 도피나 탈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이다.

부연하자면 '집 떠남'이라고 하는 가출에 대한 정의는 학문상 보편적 개념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려는 대상, 목적 등에 따라 가출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에서는 청소년 가출을 정신병리학적 증상의 하나로 보기도 하며 심리학에서는 가출을 비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자의 돌출행위 또는 행동장애로 보기도 한다.<sup>17)</sup>

13) 김민수 편, 우리말어원사전, 서울 : 태학사, 1997, p. 24.

14) 문세영, 조선어사전, 1946, p. 1591.

15) 사회과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평양 : 동광출판사, 1992, p. 594./ 본 사전 속에 '아들의 말마따나 갑숙이가 출가한 것은 자기가 심하게 군때문에 그전에 벌써 굳은 결심 밑에서 달아난 모양이니……<현대조선문학선집>13)(2)'라고 『고향』의 '그 뒤의 갑숙이'라는 장에서 인용되어 있다.

16) 안경달,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의 원인분석과 학교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석사), 1993, p. 6.

가출은 대개 가출을 야기하는 청소년만의 문제로 한정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나이를 뛰어넘고 세대를 초월한다. 가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목적에 따라 가출에 대한 정의를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특히 연령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sup>18)</sup>이 문학에서는 비판의 여지로 작용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가출을 문학에서 바라 볼 때는 아래와 같이 가출의 개념을 광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 일인 혹은 다수가 자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수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집을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출이란 단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있는 성인에게도 적용된다.<sup>19)</sup>(강조 인용자)

위의 인용처럼 본고에서는 가출이란 개념을 나이에 상관없이 역할수행을 포기하고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가출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출이란 집을 나가는 것이다. 집을 나가는 것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자아의 문제, 그리고 자유의지의 문제와 결이 닿고 있으며, 근대의 문제와도 접목되고 있다. 근대성과 근대는 엄연히 구별된다. 가출은 하나의 근대성의 징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가출이 없었던 시대는 없을 것이라는 쉬운 논리를 대입한다면 이는 의미를 지니지 못할 뿐 아니라 무가치하다. 사실 부모 슬하를 떠나 사는 것이 잘못된 리는 없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나는 엄연히 다른 존재라는 것.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부모와 나

---

17) 김지현, “소녀가출의 원인분석 연구”, 서울대학교(석사), 1996, p. 6.

18)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 학지사, 1998, p. 52.

19) 위의 책, p. 22.

를 갈라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슬하를 벗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sup>20)</sup> 따라서 문제는 가출이 다소 죄스러움, 즉 도덕적 의미에서 부모에게 반하는 어그러짐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를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다. 다만 본고에서는 부모가 나를 길러 주었으니 마땅히 부모가 늙으면 자신이 보살펴야 한다는 당연시에 주목한다. 가출은 바로 이것에 대한 현실 도피이기에 도덕적 죄책감을 수반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이념의 영향이 지대했다. 봉건적 유교이념 속에서 효(孝)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는 집단무의식의 결과 불효는 추가되며,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도덕적 메커니즘에서의 탈출, 그것이 근대적인 사고였다. 이것은 유교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의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인 것이다. 왜냐하면 유교를 국책으로 삼고 신봉하던 조선조를 통해 왕과 부(父)는 국가와 가정에서 그 위치나 권위가 동격을 유지해 왔다. 그것은 봉건제라는 피라밋 구조의 최하층부를 형성한 것이 가족 단위였던 까닭이다. 따라서 국가=왕=법률=규범=아비의 등식이 성립<sup>21)</sup>되는 속에서 가족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은 가족이 유교사회를 유지시켰던 초석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전면적인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삼종지도가 그르단 말씀이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겠지요. 지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말보다는 자식의 일생이, 지아비의 말

20)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가 가출이며 아닌지를 규정하는 일은 조작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가령 만 20세 미만은 가출이며 20세 이후는 가출이 아니라는 것도 이상하다. 이러한 외부 규정의 불철저함은 결국 가출을 개인의 문제로 귀착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개인 문제의 천착도 소설 내부에서 보면 가출자의 심리를 만족할만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현상의 출현과 그 현상의 결과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21) 서석준, 앞의 책, p. 56.

보다는 아내의 일생이 더 중하지 아니할까요?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제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를 죽임이외다. 그야 말로 인도(人道)의 죄라 합니다. 더구나 부사종자(夫死從子)라는 말은 참남자의 포학(暴虐)을 포함이외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외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지배함이 마땅하외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리(非理)가 어디 있어요” 하고 여학생은 얼굴이 붉게 되며 기운을 내어 구도덕(舊道德)을 공격하더니, “영채 씨도 이러한 낡은 사상에 종이 되어서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 속박을 끊읍시오 그 꿈을 깨시오.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오 자유를 얻읍시오!” 하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아주 엄숙한 빛이 보인다.<sup>22)</sup>(강조 인용자)

인용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구(舊)도덕을 따르기에 앞서 자신을 돌보라는 것이다. ‘儒는 字形上으로 보면 世의 需要에 應하는 人을 나타내었으니 대개 道德學藝로써 人民을 指導하는 師表的 人物이 儒의 本質’<sup>23)</sup>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만큼 이는 다시 말해 주체발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儒라는 것이 인민을 지도하는 師表적 개념이라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칸트가 얘기한 후견인으로부터의 벗어남이다. 칸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지도에서 해방된 뒤에도 일생 동안 미성년의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칸트는 말한다.<sup>24)</sup> 따라서 이러한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근대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이다. 시대마다 가출은 있어 왔으나 유독 근대에 와서 그것이 문제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데는 그것이 다분히 개인주의적인 주체의 문제인 까닭이다. 아무리 가출을 한다고

22) 이광수, 『무정』外, (두산)동아, 1995, pp. 274~275./ 앞으로 대부분의 작품 인용은 (두산)동아에서 나온 한국소설문학대계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국소설문학대계에 실려있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여타 전집을 참조하기로 한다. 앞으로는 (두산)동아에서 인용하는 경우 작품과 페이지만을 기록하기로 한다.

23) 최남선, 朝鮮常識問答, 서울 : 삼성문화재단, 1972, p. 170.

24) Kant, Immanuel., 이한구 편역,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pp. 13~14.

해도 자신이 하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기에 일면 칸트적이며,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몽시키는 칸트식 계몽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계몽의 표어이다.<sup>25)</sup>(강조 인용자)

인용문에서 칸트가 말하는 계몽이란 스스로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칸트는 철저하게 계몽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여기서 후견인이 할 일은 없다. 이를 위해 칸트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자유이다. 이는 바로 자유의지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출의 근대성은 개인이 자신 스스로를 발견하는 자아의 각성과 그에 수반된 자유의지 그리고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아닌 전 사회적 제도적 모순에 대항하는 능동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출은 드물 것이다. 또한 가출의 이면이 항상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이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출의 근대성은 이렇듯 현실을 부정하는데 있어서 왜 현실은 부정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이것이 전 사회적인 고민과 맞물린 가운데 개인적 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출은 현재에도 드물다.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가출 주인공들의 연령과 현재 가출하는 청소년들과의 연령은 엇비슷하다. 오히려 현재를 사는 이들의 실제적인 가출이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가출보다 더 전근대적이라고 할만큼

---

25) 위의 책, p. 13~22.

충동적이다.<sup>26)</sup> 다시 말해 칸트가 말한 바 미성년의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다. 아래 인용문은 일제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 당대 청년들이 처한 상황의 일절이다.

“내가 사회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 싸닭이지마는 지금 청년이 다른 방면으로 가지 안코 문학이니 음악이니 미술이니 하는 데로 방향을 고치는 것도 제 길을 마음대로 거러갈 수가 업스닛가.”<sup>27)</sup>(강조 인용자)

위와 같이 일제 식민지라는 민족적 특수성은 당대의 청년들이 추구하는 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란 자연과학, 다시 말해 국가적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실용적인 학문은 아니었다.

결국 이러한 현실, 즉 일제 식민지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만든 아이러니인 셈이다.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가출이 민족적 특수성으로 인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사회와의 연계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반면 현대의 가출은 공적인 인간, 즉 사회를 넘어서고 근대적 개인을 뛰어 넘는, 다시 말해 그것들과는 무관한 철저하게 사적인 인간이 되어 가는 해체적 징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일제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해도 써먹을 곳이 없었던 상황은 꿈이 좌절된 공간이었다면 현재의 한정된 공간과 많은 인구라는 측면은 개인의 온전한 꿈 실현의 좌절을 안겨 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한국문학에 있어서, 특히 근대문학에서 보이는 가출의 일단은 단순하게 집, 가족을 벗어나는 것으로 한정하

---

26) 김향초의 조사에 따르면 1996년 현재 청소년들의 인생의 목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40% 이상으로 압도적이며, 그 다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20% 이상으로 많다. 이 둘을 경제적 풍요 가운데 무한자유라는 개념으로 묶으면 60% 이상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김향초, 앞의 책, pp. 83~87.

27) 염상섭, 『사랑과 죄』, 서울 : 민음사, 1987, p. 36.

기에는 부족하다. 1차적으로는 집을 벗어나는 것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동네, 즉 고향을 벗어나는 것<sup>28)</sup>, 다시 말해 공동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벗어나고자 했던 것도 모두 가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일제 강점 하에 놓인 국가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벗어나든 아니면 단순히 도피의 목적으로 국가를 벗어나려는 것이든지 양자 모두 범박(泛博)하게 가출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출의 근대적 개념의 범주 속에는 가족, 고향, 국가 등이 모두 포괄된다.

그러나 집을 벗어나는 것이 전적으로 근대적인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대에 집을 벗어나는 것이 가출의 근대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역학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인간의 상상력의 범위 안에서, 또는 인간의 역사적 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기원)이자 가장 최후의 것(미래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역사를 갖지 않는다. 가족은 인류의 최초이자 최후의 것이므로 무시간적인 완전성과 불변성을 지니는 가치인 것이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인식들은, 가족은 절대적 정당성과 자연성을 가지는 초역사적인 고정된 실체라는 본질주의적 입장의 표현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족은 명확하게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구성된 실체이다. 따라서 가족 혹은 가족주의 그 자체의 내용이 봉건적이거나 근대적인 가치라기보다 '가족이란 어떠한 것이다'라는 개념이 형

28)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본래 집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혈의 루』에서의 '옥련'이나 『무정』에서의 '영채' 등등에서 그들은 본래 집이 없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출하는 현상에서 보여지는 가정이나 고향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전광식은 고향의 개념을 크게 네 가지 지평(고풍성(古風性)의 지평 · 회상성(回想性)의 지평 · 은닉성(隱匿性)과 순수성(純粹性)의 지평 · 풍경성(風景性)과 풍물성(風物性)의 지평)으로 나누면서 고향은 단순한 지형이나 장소가 아니고 개인의 인격 및 삶과 결부된 공간이며, 고향은 개인의 삶의 정체성과 자기 정체성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고 말한다./ 전광식, 앞의 책, pp. 23~31.

성되는 사회적 역학 관계에 따라 봉건적이거나 근대적인 성격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구성되는 것이다.<sup>29)</sup>(강조 인용자)

다시 말해 가족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은 이것이다 하는 사회적 역학 관계에 따라 가족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당대의 집을 벗어나는 가출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당대 사회적 역학관계에 따른 가족의 성격은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교적 가족제도에 기반한 가족이었다. 유교적 가족제도가 지니는 사회조직과 가정을 동일시하는, 부자관계 중심의 권위와 복종이 당대 사회의 가족제도였다.<sup>30)</sup> 작품 『무정』에서 보이는 자유연애론이 이를 바로잡고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는 충분히 근대적이다. 자유연애란 봉건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조혼이나 강제혼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뜻에만 맡기지 말고 자기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sup>31)</sup>

영채는 좌우에 새로 이사 나온 조밭을 보며 지나간 일 삭간의 일을 생각한다. 몸은 비록 가만히 있었으나 정신상으로는 실로 큰 변동이 있었다. 전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리만큼 큰 변동이 있었다. 죽으러 가노라고 가던 길에 우연히 병욱을 만난 일과, 병욱의 집에서 칠팔 년 만에 비로소 가정의 즐거움을 다시 본 것과, 자기가 지금껏 괴로워하던 지옥 같은 세상 밖에도 넓고 자유롭고 즐거운 세상이 있음을 깨달은 것과, 또 별국에게 대하여 불타는 듯하는 사랑을 느낀 것을 두루 생각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이제는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러 감을 생각하며, 일신의 운명의 뜻밖에 변하여 가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혼자 빙그레 웃었다.<sup>32)</sup>

29)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 책세상, 2000, p. 14.

30) 김윤식 · 김 현, 한국문학사, 서울 : 민음사, 1973, pp. 48~52.

31) 권보드래, "열정의 公共性과 個人性-신소설에 나타난 '一夫一妻'와 '二妻'의 문제", 한국학보, 통권99호, 일지사, 2000, p. 122.

(강조 인용자)

아버지의 농담 같은 한 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토록 '형식'만을 기다리던 '영채'. '영채'의 이러한 모습은 1912년에 발표된 「추월색」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추월색」에서 '정임'과 '영창'은 그들의 부모끼리 정혼한 사이나,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임'의 경우 애정이 아닌 <명분>과 자기 의지의 결합<sup>33)</sup>으로 '영창'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이 '<명분>'과 같은 봉건적 가치관이 인용문에서 보듯 변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조를 유린당하고 자살을 결심하던 여인의 심정이 위와 같이 변모한 것이다. 봉건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사상을 갖게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유교적 메커니즘에 기반 한 가족제도에 대항하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근대적 의미의 가출이란, 자유의지에 기반한 상태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고 집을 비롯해서 고향, 국가 등을 벗어나는 것을 모두 가출로 보는 관점인데, 거기에는 가출이 특정 시대와 결부된 현상은 아니라는 점. 따라서 가족의 개념이 사회적 역학 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출 또한 봉건시대가 무너지는 와중에서 보이는 근대적 개인과 사회·역사적 문제가 결부된 틈바구니 속에서 보이는 '집 떠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가출의 개념 또한 사회적 역학 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출가든 가출이든 모두 집을 나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출가와 가출이 완전하게 갈라지는 부분은 가출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출하는 자가 무엇인가 뜻을 품고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은 출가이며 반대로 현실을 단순히 부정하는 의미에서 집을 나가는 것은 가출이 되는 것이다. 가출과 출가가 이러하다 할 때 가출하는

---

32) 『무정』, p. 309.

33) 권보드래, 앞의 글, 같은 곳.

장본인의 숨은 의도를 완전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따른다. 한 작품 속에서 집을 나가는 주인공의 의도가 겉으로는 단순한 가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주인공의 숨은 의도는 읽어 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고향』 ‘출가’의 장에서 주인공 ‘안갑숙’이 가출하는 것은 아버지 ‘안승학’이 ‘권경호’의 출생의 비밀을 빌미로 자신과 ‘권경호’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데 따른 반발심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녀는 고향인 윈터 마을의 제사공장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김희준’과 더불어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결론은 충분히 그녀의 ‘집 나감’을 출가라는 의미로 격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집 나감’은 탈출이기도 하며 진정한 의미의 출가(出家)이기도 하다.

이것은 결국 가출의 내적 형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가출의 형식은 불완전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가출 자체가 반드시 귀향을 목적하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한국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가출은 귀향을 전제하지 않는다. 가출은 여로형의 안정된 구조를 취할 수 없다. 가출한 이후의 모든 행적을 가출소설이란 이름으로 다룰 수 없음은 가출이 진행형이기보다 벗어나는 순간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가출의 형식이라 했을 때는 목적인 가출과 그렇지 않은 가출 속에서 가출의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의 결합 속에서 가능해진다. 귀향이 고향이라는 자기 동질성으로의 회귀가 목적이라면 가출은 가출 당시의 그 목적인 바의 달성 여부가 결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출의 내적 형식이라 함은 가출 동기와 그 결말의 양태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출은 특정한 시대와 결부된 현상이 아니다. 가출이 현실부정에서부터 연유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는 「홍길동전」 등의 고소설에서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홍길동’의 가출은 현실을 비판한 현실부정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의 이상은 율도국 건설이라는 자신만의 이상향을 찾아가는 도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고소설에서 보이는 가출과 근대 소설에서 나타나는 가출과는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양

자의 차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것은 가출의 근대적 의미와 가출의 전근대적 의미의 차이가 무엇이나를 규명하는 작업이기에 그렇다. 이러한 규명 자체가 의미를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듯이 전근대와 근대가 뚜렷한 차이로 대별되는 것이라 했을 때, 이러한 상호 문화적 간극에서 보여지는 가출은 결코 같은 모습일 수 없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문학이 그 시대를 표현하고 담지 해내는 것이라 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며 문학 속에 나타난 가출 또한 이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범위가 근대 소설인 만큼 모던(modern)과 모더니티(modernity)에 대한 개념규정은 중요하다.

모더니티란 사회적 삶의 독특한 형태로서 근대 사회(modern society)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sup>34)</sup> 이 정의만을 가지고 논의하자면 모더니티는 모던보다 뒤에 생긴 용어이다. 모던 개념에는 중세 이후를 가리키는 시대 구분 개념과 새로운 시대 의식을 가리키는 철학적 담론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근대성> 혹은 <현대성>이란 표현을 쓸 때는 후자를 가리키는 것<sup>35)</sup>이며, 본고에서 중점을 두는 모던 개념 또한 후자를 따른다. 그러나 김성기는 근대성 혹은 현대성 개념은 모더니티의 철학적 담론으로 국한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사회 문화적 현상의 복합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던이란 개념을 '새로운 시대의식을 가리키는 철학적 담론'이라 했을 때는 이것은 모더니티라는 사회 문화적 현상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 의미이기도 하다. 근대와 근대성을 구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근대성은 근대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근대 속에 있는 시기구분 개념과 새로운 철학적 담론이라는 이중 의미 속에서 전자는 동적인 시대의식으로서의 모더니티이며 후자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모더니티이기 때문이다. 결국 본고에서는 사회 문화적 현상인 모

34) 김성기, "세기말의 모더니티", 김성기 外,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 16.

35) 위의 책, p. 21.

더니티 중에서 연구의 성격상 생활 양식으로서의 모더니티에 주목한다.

1)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18세기에 공식화했던 모더니티의 계획은, 각각의 내부적 논리에 따라 객관적 과학, 보편적 도덕과 법률, 그리고 자율적 예술을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계획은 이 영역들 각각의 인지적 잠재력들을 은밀한 형식들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의도하였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일상생활의 비옥화 즉 다시 말해서 일상적 사회생활의 합리적 조직화를 위하여, 특수화된 문화의 축적을 이용하기를 원하였다.<sup>36)</sup>(강조 인용자)

2) 역사적으로 부르조아지는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부르조아지는 자신이 지배를 확립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모든 봉건적·가부장적·전원적 관계를 종식시켜 왔다. 부르조아지는 인간을 '타고난 상하관계'에 묶어놓는 잡다한 봉건적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으며, 그외의 모든 인간의 관계를 적나라한 이기심, 냉혹한 '현금지불관계'로만 만들어 놓았다.<sup>37)</sup>

(강조 인용자)

인용문에서 계몽주의가 공식화한 모더니티의 계획이 1)에서의 '해방'과 2)에서의 봉건적 관계의 청산임을 감안할 때, 이는 기존 사회에 반하는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부르조아 사회의 출현을 봉건사회의 폐허로부터 싹튼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연구의 출발점을 애국계몽기로 잡는다. 이 시기를 통해 자의든 타의든 외세의 물결과 함께 새로운 시대인식이 감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설은 개화기, 엄밀한 의미에서는 애국계몽기부터 1945년 해방까지 발표된 소설을 그 연구대상으로 했다. 그 이유는 우리 문학에서 신소설이 출현하는 시기를 시발로 해서 넓게는 한국

36) Jürgen Habermas, 박거용 역, "모더니티—미완성의 계획",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문화과학사, 1989, pp. 113~114.

37) K. Marx · F. Engels, 남상일 역, 공산당 선언, 서울 : 백산서당, 1989, p. 57.

전쟁의 기원을 해방공간까지 소급함으로서 근대가 아닌 현대문학의 출현을 해방공간으로 보았다.<sup>38)</sup> 이는 달리 말하면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소설에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를 중심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발표된 제 작품마다 가출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리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출 자체가 중심이 아니고 가출 모티프를 통한 작품 읽기가 중심이다. 작품 읽기가 중심인 만큼 외재적 비평의 문학적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논의들에 대한 천착보다는 작품의 내적 구조를 보다 중요시한다.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작품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가출 모티프를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이며, 이를 분류하고 거기에 어느 만큼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가치문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의 문제와 결이 닿는 부분이기에 애국계몽기에서 해방까지 나타나는 가출 현상도 시대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전제 속에서 시대적·역사적 과제와 가출 모티프와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시대적·역사적 변화와 관련 가출을 살핌에 있어서 문화사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가출 모티프를 분류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자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을 구성하고 성찰하게 하는 언어이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 소통 체계인 것이다.<sup>39)</sup> 따라서 문화를 통한 시대 읽어내기, 이른바 새로운 역사 읽기가

---

38) 오세영은 8·15 해방에서 4·19를 거친 그 이후의 시기를 전시대와 구분하여 현대라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시기에 비로소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민족 국가를 수립하였고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먼저며, 시민 정신의 성숙을 경험하였다는 것과 현대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여 근대 산업 사회로 들어섰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오세영, “근대 시·현대시의 개념과 기점”, 김용직 外, 한국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2.

39)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 또하나의문화, 1997, p. 163.

필요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문화를 통한 두겹게 읽기<sup>40)</sup>가 필요하다.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sup>41)</sup>라는 논의가 있듯이 문화를 통해 문학을 읽으면 문학사 또한 다소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sup>42)</sup>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가 거의 전무한 만큼 가출 모티프를 통한 사적 읽기, 즉 문화적 측면으로서의 가출을 통한 작품 읽기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의미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출이란 부정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야 그렇지 가출이 모두 부정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가출(家出)을 긍정이라고 보았을 때는 통제가 아닌 자율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 이들을 가두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으로 보았을 때는 이는 사회적 문제이며, 특히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위기는 계몽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근대적 질서, 또는 진보주의, 그리고 근대적 인간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sup>43)</sup>으로, 프리데릭 제임슨이 말한 후기 산업 사회의 문화 논리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sup>44)</sup>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전광식은 오늘날 서구에서 ‘고향

---

40) 인문과학에서 ‘두겹게 읽기’란, 예컨대 사과를 묘사함에 있어서 자연과학에서 하듯이 사과와 관련된 외형적, 객관적 사실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자체 보다는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다루는 것이라고 조한욱은 말한다. 따라서 ‘두겹게 읽기’는 자연스레 의미의 두꺼운 층위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 상징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이 점에서 문학적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 책세상, 2000, pp. 12~13.

41) Hunt, Lynn., 조한욱 역,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서울 : 소나무, 1996, p. 7.

42) 이 같은 생각은 조심스럽다.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작품의 선별은 가치기준이다. 그러나 문화를 통한 문학사 기술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는, 본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출 모티프가 등장하는 모든 소설이 다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모티프가 작품 자체는 될 수 없을 것이기에 여기에서의 작품의 가치는 소멸돼 버린다.

43) 조혜정, 앞의 책, pp. 101~102.

44) Fred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Postmodernisms - An Introductory Anthology*, Chung-Ho Chung & So-Young Lee, Korea : Hanshin Publishing Co., 1990, pp. 244~245.

영화' '고향 소설' '고향 예술' '고향 노래'등 다양한 고향 관련 예술 장르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동심의 과거를 현재에서 반추(反芻)하여 '현재화'하려고 하는 것이며, 과거의 실존을 현존과 연결시켜보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은 산업 문명적이고 도시 문화적인 일상성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 의식의 예술적 발현이며, 동심적 과거 지평을 부활하는 것은 탈문화적, 탈도시적, 탈근대적 그리고 탈현세적인 것이며, 이것은 익명화되고 비인간화되고 물화되어 소외된 현존으로부터 과거에로의 도피를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동질성을 확인하는 의식작업이라는 것이다.<sup>45)</sup> 귀향의지나 귀향지향이 탈근대적이라고 한다면 가출의지나 가출지향도 마찬가지로 탈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제도에 대한 거부라면 이것은 원하던 그렇지 않든간에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의지를 표상하는 공백이 되며 그러한 공백은 현실도피나 현실변혁이라는 쌍생아를 잉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가출이 탈(脫)근대의 징후라면 뚜렷한 전근대도 아니고 근대도 아닌, 정확히 이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었던 시기에서 보여지는 가출도 탈(脫)근대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이는 빈도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가출이야말로 전근대를 뛰어넘는 수단이자 탈(脫)근대를 향한 방법이었다는 가정이다.<sup>46)</sup>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가출 모티프를 통해 근대 소설을 바라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상당수 가출보다는 귀향이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반작용과 함께 시대적 ·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볼 때 가출 또한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지닐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Ⅱ장에서는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가출의 사회 · 역사적 동

45) 전광식, 앞의 책, p. 43.

46) 현대사회에 있어서 고향의 의미는 현격하게 퇴색하고 있다. 고향이 지닌 무게가 반감되고 그 실체가 서서히 無화되면서 사회 또한 해체징후 속에 놓여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인을 추적할 것이다. 가출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동인을 고찰함으로써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가출과 가출을 통해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모습의 발견이 용이하리라는 생각이다.

앞서 제시한 바 가출자의 진정한 의도가 문학 작품 속에 그대로 형상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관계로 가출을 분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작품의 말미, 즉 가출의 결말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가출 동기와 결말의 결합양상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가출 행위가 지향하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가출의 내적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 분석과 함께 가출 모티프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유형화시킬 생각이다. 유형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출의 동기와 그 결말의 결합구조 속에서 가출 모티프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 분석을 통해 본고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며, 근대소설에서 가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적 형식임을 밝히고자 한다.

## II.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

하나의 보편적 현상은 다기한 개별적 현상들의 집합이다. 또한 하나의 현상의 출현은 그러한 현상을 야기한 수많은 원인들의 집합이다. 가출 또한 마찬가지로 가출이라는 현상을 유발한 다기한 원인 및 동기의 결과로 본다면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이라는 보편적 현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하는 것은 가출이라는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역추적 하는 일이다.

가출은 단순히 원인의 나열일 수 없다. 어디까지나 가출은 제반 환경이 만들어 놓은 가출이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이나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문학에 적용했을 때 나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이나 근대적 의미의 가출이라 했을 때는 그 의미는 더욱 증폭된다. 왜냐하면 근대는 공동체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역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출은 본인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니 만큼 근대적 자유의지에 기반 한 것이다. 이는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상황이 자유의지 이전에 그를 가출로 몰고 간다고 해도 최종 행동의 결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출을 분류하는 것이 단순히 분류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출이 이루어지는 개별 상황하에서 살피는 것이 가출 형태를 분류하는데 유리하다. 상황과 의지,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가출에는 그 원인만큼이나 유형 또한 무수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가출 관련 사회학 논문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가출원인을 조사하고 가출유형을 분류하는 작업만으로 거기서 충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현상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개인마다 달리 읽혀지는

내적 변형이라고 본다면 문학에서의 가출과 사회학에서의 가출은 분명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학에서의 연구 대상은 뚜렷한 실체로 대별되지만 문학은 하나의 텍스트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학에서 가출을 다루는 방식은 가출 모티프를 통한 가치 개념이어야 한다. 이것은 가출 자체가 가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문학에 있어서의 가출은 모티프로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티프가 주제가 아니기에 문학의 전면에서 나설 수는 없다. 물론 모티프가 주제가 되거나 작품 주제와 밀접한 연관 속에 있을 수도 있으나, 반면에 하등 전체적인 문학적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문학적 형상화에 모티프가 깊게 작용하는 작품만을 다루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볼 때 문학적 형상화 자체, 즉 가출이 전체적인 작품의 의미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단순히 한 두 작품 속에서만 가출 모티프를 다루는 것은 무리다. 어떠한 형태로든 문학이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가출은 사회적 현상이며, 이것이 형상화된 가출 모티프 또한 문학적 현상이다. 때문에 사회학에서 가출 현상을 분류하듯 문학에서도 가출 모티프는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분류 자체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통한 의미부여이다.

결국 가출을 통해 당대를 읽어 내는 것만이 아니라 가출을 통해 당대에 왜 이러한 소설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 가출을 분류하는 것은 가출이 되는 상황, 즉 환경이 만들어 놓은 강제적인 가출이냐 아니면 본인의 의지에 기반한 가출이냐, 또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의 수립 여부와 단순히 이상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투철한 현실이냐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가출이 어떤 작품 속에 나타났다면 그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가출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가출인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밖으로 내 쫓김을 당하는 방출요인과 사회에서 끌어당기는 유인요인 그리고 가출행위를 실제로 유발시키는 촉발요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47)</sup> 이때 방출요인은 가정적인 원인이 크며, 유인요인은 사회 환경적 요인이 크고, 촉발요인은 가출자 개인의 일시적 충동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다수의 가출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구분<sup>48)</sup> 중에서 가출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원인이라 했을 때는 가출자가 객체의 입장에 서 있는 용어이며, 동기라 했을 때는 가출자가 주체가 되는 용어에 가깝다. 본고는 가출자가 주체의 입장에 서 있는 동기의 측면에서 가출 모티프를 주로 다룰 것이다. 일단은 소설을 발표연대순으로 살펴 볼 것이며, 가출하는 주인공들을 정리할 것이다. 제 작품 속 주인공들이 가출하는 내용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그 유형을 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론적으로 가출 동기에 따른 가출유형 분류라 함은 1)목적 지향적 가출, 2)도피(탈출<sup>49)</sup>)형 가출, 3)단순형 가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1)은 현재의 생활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해서 가출하는 형태이며(이는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출하는 등의 형태이다), 2)는 욕구의 불만이나 자신의 의사에 맞지 않는 가족, 사회 등에 의해 비판받기 때문에 이를 피해 가출하는 것이며, 3)은 단순한 호기심과 놀이를 위해 동료집단에 동조해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가

47) 이옥란 外, “부산지역 여성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8, p. 21.

48) 가출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1)가출동기, 2)집을 떠난 기간, 3)집단 규모, 4)문제정도, 5)행동 및 태도 요인, 6)부모요인과 아동요인에 의해, 7)가출행위의 내면화 정도 등 많은 기준이 있다. 본고에서는 가출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이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 데, 여타의 기준은 1)을 위한 방법일 수는 있어도 목적일 수는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위의 글, p. 29.

49) 인용문에서는 단순히 도피형 가출이라 되어 있으나, 이를 우리 근대문학에 놓고 볼 때는 탈출의 의미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출하는 형태이다.<sup>50)</sup> 이렇게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효하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출유형을 집을 떠난 기간이나 가출횟수, 집단규모, 가출행위의 내면화 정도 등의 다양한 기준<sup>51)</sup>에 의거하는 것은 앞으로 살펴 볼 가출 유형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한 가출이 반드시 돌아옴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하튼 가출 이후 주인공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주인공의 가출 자체가 작품 말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승과 하강 등으로 나누어<sup>52)</sup> 살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출 동기에 따른 유형분류가 가출의 양적인 측면이라면 상승과 하강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가출의 질적인 측면이다.

---

50) 3)의 경우는 본 논문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하에 서의 가출유형은 1)목적 지향형과 2)도피형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스스로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은 방출형이 추가 될 것이다.(장수한, “상당사례를 통한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대책”, 부산대학교(석사), 1993, pp. 6~8.)/ 본고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논의에서도 문학의 입장에서 가출 현상을 분류했던 논문은 볼 수 없었으므로 일단은 사회학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사회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가출의 결말을 여기에 추가하게 된다.

51) 김민정, “여학생의 상승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 1999, p. 13.

52) 가출 유형을 나눔에 있어서 상승형과 하강형으로 구분하는데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단순하게 작품 말미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가출의 결말만을 가지고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 방식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록수』의 ‘영신’이나 『인간문제』의 ‘선비’ 등은 가출 자체가 그 결말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된다. 이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엄연히 이는 부정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이 지향하는 측면, 즉 주제와 어떠한 연관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죽음은 농민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상록수』), 성숙한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인간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승형과 하강형으로 나누는 기준이란 가출과 가출의 결말의 결합 구조 속에서 그러한 결말이 작품이 지향하는 면과 어느 만큼 부합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메밀꽃 필 무렵」에서 ‘성서방네 처녀’가 겪게 되는 방출형의 가출은 흩어진 가족의 재회라는 긍정적 결말에 도달한다.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략적으로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유형1)은 가출 동기에 따라 가출 모티프를 분류한 결과이며, 두 번째(유형2)는 주인공이 가출한 이후의 모습을 토대로 상승과 하강으로 나누어 본 결과에 해당한다. 가출 동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유형1)의 경우 대부분의 가출유형은 목적 지향형과 도피형으로 나누어지며, 간혹 가출 원인에 기반하고 있는 방출형도 확인된다. 목적 지향형 가출 모티프에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바꾸어야 한다는 당위, 돈을 추구하는 물질지향형 등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도피형에는 원치 않는 결혼에 대한 반발, 고향상실, 종교적 갈등 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메밀꽃 필 무렵」에서 도덕적 모랄에 기반 한 방출형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유형2)의 경우는 상승의 경우가 하강의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후술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분류작업을 통하여 본고 II장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이다.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해서 그 가치추구가 본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본고는 연구의 시작을 개화기로 잡고 출발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제 가출 모티프의 변모양상을 살펴보고 그 변모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러한 변모 속에서 시대마다 가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본고가 잡고 있는 통시적 기간이 그러한 변화의 추이를 살필 만큼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실지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가출 모티프는 앞으로 살펴볼 <표>1~4에 의하면 일정 기간마다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지속과 변화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제 가출 모티프는 그 기간을 대표하는 전형을 상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전형이라고 하면 그 시대만이 안고 있는 모순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총체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총체적이란 개념

이 함축하는 바 이는 개인과 사회의 끊임없는 변증법적 합일의 방식을 통한다. 이 점에 있어서 가출은 궁극적으로 사회와 개인간의 지속적인 조우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아래 <표>1~4에서 분류한 <표>에 의거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에 따라 가출 모티프의 변모양상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주지할 것은 서론에서 제시한 바 본고는 외재적 비평의 문학적 환원주의를 경계하는 측면에서 순전히 <표>1~4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1. 전환기적 현실과 소명의식의 발현

아래 <표1>은 개화기라는 전환기적 현실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설 속 주인공들이 내 보이는 소명의식의 발현으로 가출하게 되는 상황을 <표>를 통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작품	저자	주인공	발표 년도	가출 동기 및 원인	유형1	유형2
혈의루	이인직	김옥련	1906 ~ 1907	'옥련'을 보살피 주던 정상이 전사하자 그 부인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가출을 선택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구완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옥련'과 함께 유학길에 오른다.	목적 지향형	상승
		김관일		잃어버린 '옥련'은 찾지 않고 모순된 현실만을 개탄하며 부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목적 지향형	상승
은세계	이인직	최옥순 최옥남	1908	'최병도'의 친구인 '김정수'의 손에 이끌려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 이후 작품 미완.	목적 지향형	상승성 / 알수없음
월하 가인	이해조	심진사 윤조	1911	물락한 양반인 '윤조'와 '심진사'는 목서가로 노동이민을 떠난다.	도피 (탈출)형	상승 하강

<표1> 전환기적 현실과 소명의식의 발현(1906년 ~ 1911년)

타율적 개화 이후 우리 사회는 국권의 상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다. 그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철의 루」에서 이들이 가출하는 이유의 저변에는 전적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구완서’의 가출이 그러하고 ‘김관일’의 가출이 그러하다. ‘구완서’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옥련’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며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김관일’ 또한 유학길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김씨는 혼자 빈집에 있어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별생각이 다 난다. — (중략) — 땅도 조선 땅이요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 우리 마누라는 대문 밖에 한결음 나가 보지 못한 사람이요, 내 딸은 일곱 살 된 어린아이라 어디서 밟혀 죽었는가. 슬프다. 저러한 송장들은 피가 시내되어 대동강에 흘러들어 여울목 치는 소리 무심히 듣지 말지어다. 평양 백성의 원통하고 설운 소리가 아닌가. 무죄히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라. — 중략 — 평안도 백성은 염라대왕이 들이라. 하나는 황천에 있고, 하나는 평양 선화당에 앉았는 감사이라. 황천에 있는 염라대왕은 나이 많고 병들어서 세상이 귀치 않게 된 사람을 잡아가거니와, 평양 선화당에 있는 감사는 몸 선하고 재물있는 사람을 낚날이 잡아가니, 인간 염라대왕으로 집집에 터주까지 겸한 겸관이 되었는지, 고사를 잘 지내면 탈이 없고 못 지내면 온 집안에 동토가 나서 다 죽을 지경이라. 제 손으로 벌어 놓은 제 재물을 마음놓고 먹지 못하고 천생 타고난 제 목숨을 남에게 매어 놓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불쌍하다 하겠거든, 더구나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싸움을 하느니 지랄을 하느니, 그러한 서슬에 우리는 폐가하고 사람 죽는 것이 다 우리나라 강하지 못한 탓이라.<sup>53)</sup>(강조 인용자)

2)“오냐, 학비는 염려 말아라. 우리들이 나라의 백성 되었다가 공부도

53) 「철의 루」, pp. 17~18.

못 하고 야만을 면치 못하면 살아서 쓸데 있느냐. 너는 일청전쟁을 너 혼자 당한 듯이 알고 있나 보다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당하지 아니한 일이나. 제 곳에 아니 나고 제 눈에 못 보았다고 태평성세로 아는 사람들은 밥벌레라. 사람이 밥벌레가 되어 세상을 모르고 지내면 몇 해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청전쟁 같은 난리를 또 당할 것이다. 하루바빠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부인 교육은 네가 맡아 문명길을 열어주어라.<sup>54)</sup>(강조 인용자)

1)은 ‘김관일’이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옥련’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다가 돌아와 집에서 혼자 쉬는 장면이다. ‘김관일’은 이때 깨닫는 바 있어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2)는 ‘구완서’가 미국유학에 오른 궁극적인 이유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1)의 인용문과 2)의 인용문에는 모두 모순이 있다. 1)의 인용문에서 ‘땅도 조선 땅이요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라고 느끼던 ‘김관일’. 그는 이것이 ‘원통하고 설운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선이 두 개의 신을 섬기는 등의 미신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의 인용문에서도 ‘우리들이 나라의 백성 되었다가 공부도 못 하고 야만을 면치 못하면 살아서 쓸데 있느냐. 너는 일청전쟁을 너 혼자 당한 듯이 알고 있나 보다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당하지 아니한 일이나’라고 말하는 ‘구완서’는 다시금 그러한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하루바빠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부인 교육은 네가 맡아 문명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들이 전제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모두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가출인 ‘옥련’은 어떠한가.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옥련’을 보살피는 것은 바로 일본인 장교 ‘정상’이다. ‘옥련’이 조선적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면, ‘옥련’이 ‘정상’이라는 일본군 장교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

---

54) 위의 책, p. 49.

은 '일청전쟁'과 같은 언어적 조합이 상정하는 것처럼 작가 이인직의 정치적 감각으로 보는 견해<sup>55)</sup>도 타당하나, 나중에 '정상'이 죽자 정산부인에게 시달리다 못해 '옥련'은 가출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이것을 이념성과 흥미성의 조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녀의 행동에 가출이라고 하는 현실부정의 논리를 대입하게 되면, '옥련'이 일시적인 보호 속에 있었다더라도 이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그녀의 가출은 조선적 현실을 계몽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는 생각해 볼 문제다. 결국 이 시대의 가출 모티프는 반봉건의 문명개화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인직의 다른 작품인 「은세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전략) - 갑신년 시월에 변란이 나고 김씨가 일본으로 도망한 후에 최씨가 시골로 내려가서 재물 모으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경영인즉 재물을 모아 가지고 그 부인과 옥순이를 데리고 문명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여 지식이 넉넉한 후에 우리나라를 붙들고 백성을 건지려는 경륜이라.<sup>56)</sup>

(강조 인용자)

개항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모가 비로소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무너져 가는 봉건사회 내부의 혁명적 요소에 급속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다.<sup>57)</sup> 이러한 측면을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인직의 「혈의 루」나 「은세계」가 반봉건의 시각에서 쓰여진 소설임은 인용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는 바다. 반봉건이 이루어지면 조선을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한 논리에 방법론이란 일본과 서구의 문명을 배우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다시 말해 문명 개화를 위해 계몽을 위한

55) 김윤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서울 : 예하, 1993, p. 34.

56) 「은세계」, p. 287.

57) Marx, K. · Engels, F., 앞의 책, p. 53.

교육의 중요성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 - (전략) -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백성을 살리려 하면 정치를 개혁하는 데 이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쪼록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넓혀서 아무 때든지 개혁당이 되어서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여보 누님, 우리가 지금 고국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더라도 어머니 병환이 나으실 리도 없고, 아버지 산소에 가도 아버지가 살아오실 리가 없으니, 아무리 우리집에 박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박절한 사정을 돌아보지 말고 국민 동포에게 공익(公益)을 위하여 공부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만 잘되면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하에서 눈을 감을 것이요, 철천지 한을 품고 실진까지 되셨던 어머니께서도 한이 풀리시면 병환이 나으실는지도 모를 일이니, 어머니를 위할 생각을 그만하고 나라 위할 도리를 하시오. 누님이 만일 그런 생각이 작고 하루바삐 고국엘 돌아가서 어머니나 뵈고 누님이 시집이나 가서 편히 잘살려는 생각이 간절하거든 오늘일지라도 떠나가시오. 노잣돈은 아무 때든지 시액기씨에게 신세지기는 일반이니, 내가 말하여 얻어 드리리다.”<sup>58)</sup>(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은 가출할 당시에는 그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이 비로소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를 고국에 두고 온 누나인 ‘옥순’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다소 약해지자 동생 ‘옥남’이 나라를 걱정하며 공부를 계속할 것을 독려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진정 ‘옥순’ 남매가 유학길에 오른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혈의 루」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넓혀서 아무 때든지 개혁당이’ 되어 ‘국민 동포에게 공익(公益)’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문명 개화 자체가 부강한 국가라는 식의 등가논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가출에 있어서 그들의 머릿속에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

---

58) 「은세계」, pp. 321~322.

년 바로 국가라는 절대절명의 대전제였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가출은 국가를 염두에 둔 가출이었기 때문이다. 1900년대의 국가의 위상은 독점적 권위로서 군림하였으며 국가는 결혼의 연령과 형식을 결정하는 궁극의 원천이었고, 그 밖의 요소는 국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했으며, 사회의 전부분을 장악한 조직화의 원리였다.<sup>59)</sup> 당대 국가의 위상이 그러했다면 「혈의 루」에서의 가출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하나 세상에 뜻이 있는 남자 되어 처자만 구구히 생각하면 나라의 큰일을 못 하는지라. 나는 이 길로 천하 각국을 다니면서 남의 나라 구경도 하고 내 공부 잘한 후에 내 나라 사업을 하리라 하고 밝기를 기다려서 평양을 떠나가니, 그 발길 가는 데는 만리 타국이라.<sup>60)</sup>(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은 ‘김관일’이라는 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신성시하던 국가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자 가출하게 되고, 자연 그의 가출은 전연 국가를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개화기라는 전환기적 현실에서 보이는 소명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러한 국가에 대한 열정은 국가가 소멸하지 않고서는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았을 경우 1910년 이후 가출의 동인은 달라지게 된다.

## 2. 근대적 개인의 자아의식의 대두

아래 <표2>는 근대적인 개인의 자아의식이 성장하게 되면서 바로 그러한 면모 자체가 하나의 가출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소설 내부에서 나타나는 가출양상을 <표>를 통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

59) 권보드래, 앞의 글, pp. 116~119.

60) 「혈의 루」, p. 19.

작품	저자	주인공	발표 년도	가출 동기 및 원인	유형1	유형2
추월색	최찬식	이정임	1912	어렸을 적 절친했던 '영창'을 못 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강제 혼인에 반발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간다.	목적성 도피 (탈출)형	상승
무정	이광수	박영채	1917	'형식'만을 생각하며 지켜오던 정조를 유린당하자 죽을 결심으로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개척자	이광수	김성순	1918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과 여성으로서 순결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슬픈 모순	양건식	백 화	1918	항학을 가로막고 돈을 벌어오라는 부모에게 반대하며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표본실 의청개 고리	염상섭	나	1921	알 수 없는 자살충동에 이끌려 집을 벗어나게 된다.	단순형	알 수 없음
이향의 루	茄子 峰人	복순네 가족	1921	가난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북간도로 떠나는 복순네 가족.	도피 (탈출)형	하강
환희	나도향	이영철	1923	'이영철'은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 '이상국'이 자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는 강제에 반발하여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성

<표2 > 근대적 개인의 자아의식의 대두(1912년 ~ 1923년)

1910년은 한일합방 이후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만다. 상실 이전에 간절했던 것이 완전히 상실되고 나자 간절함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1910년 이후 국가에 대한 열정은 거의 희박해진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국가의 권위는 사실상 유지될 수 없었고, 일상적인 감각에서도 그 사실은 점차 추인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sup>61)</sup> 물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봉건의 문제는 커다란 한 축을 형성하고는 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아의식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 권리의 절대성과 통치 권력의 필연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써 근대 <사회>라는 영역이 설정되었으며, 이 영역은 경제 기능이 작동되는 시장의 영역과 도덕 기능이 이루어지는 합의consensus 혹은

61) 권보드래, 앞의 글, p. 121.

은 교화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사회> 영역은 자유로운 개인의 결사체로서 개인과 구별되는 동시에 권력의 장치인 국가와 구별되면서 개인—사회—국가의 영역이 구획되기에 이른다.<sup>62)</sup>(강조 인용자)

인용문에서 보듯 근대에 있어서 개인, 사회, 국가는 그 영역을 달리한다. 개인의 자유 발견 이후 사회 속의 개인이라는 각성, 그리고 사회가 도덕성의 원리에 기반 한 것이라면 국가는 권력의 장치였던 것이다. 본고는 근대소설에서 확인되는 가출 모티프의 모습이 위 인용문과 같이 구획된 영역 속에서 다르게 표출되었다고 본다.

- (전략) - 정임이는 영창이 식각을 이질만 하다가도 식집이니 장가니 혼인이니 사위니 하는 말을 드르면 식로이심각이 못득못득는는터이라 의심촌이 혼처의는홀떡에도 영창이심각이 뼈에사마쳐서 거는방으로 드러가 눈물을 물너씨스며 빅골이되야도 영창의안히이라 비록 영창이는 불행한얏슬지라도 나는결코 두스름의쳐는 되지아니홀터이오 저아졌씨는 아모리 중미한다하야도 입에선바람만 되릴걸」하는심각이 퇴수에밧쳤스니 녀즈의 붓쓰러운마음으로 그부모의게는 아모말도못하고 지너던터니더니 턱일단즈보너는것을보미 가심이선뜩하고 심기가 좃치못하야 몸을비비틀며 참다가못하야 그모친의귀에더고 응석처럼 가만히 하는말이라 - (중략) - (정)그런것이 아니올시다 아버지께서 열너는 불경이부라는글 가랏쳐주셨지요 나를이왕 영창이와 결혼하시고 지금또 식집보낸다하시니 부모가혼즈식을 두스람의게 허락하시는 법이잇습닛가 아모리 영창이종적은 아지못하는 다른곳으로 식집가기는 죽어도아니하릿습니다」<sup>63)</sup>(강조 인용자)

인용문에서와 같이 「추월색」에서 ‘정임’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시집보내려는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이 사

62) 장성만, “개항기의 한국 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김성기 外, 앞의 책, p. 271.

63) 김윤식 外, 「추월색」, 신소설·번안(역)소설3(한국개화기문학총서),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8, pp. 32~34.

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사를 내보이는 것이다. 급기야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공부를 하기 위해 가출을 하게 된다. '정임'과 '영창'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으며, 아무리 어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영창'의 부모와 '정임'의 부모 사이에 맺은 정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 혹 '정임'이 '영창'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결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정혼이라고 하는 봉건적 가치관에 따른 결과로 보일 수도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이것을 '정임'이 철저하게 봉건적 세계관을 따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임'은 그러한 가치관을 자신에게 심어준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논리로 정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건적 사고에 똑같은 봉건적 가치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애초부터 성립 될 수 없는 것인 바, '정임'이 여기서 보이는 애초에 맺었던 정혼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정혼 자체가 '정임' 자신에게는 현실이라기보다는 방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추월색」에서와 같이 개인문제가 대두되는 모습이 가출 모티프로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추월색」외에도 『무정』, 『개척자』, 「슬픈 모순」 등과 같은 소설에서 전반적으로 확인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정』에서 '영채'는 봉건적 가치관과 결별하며 자신을 찾게 되고, 『개척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전 그대로의 부모의 의사를 좇아 결혼하는 순응적인 인간모습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인간상을 보여준다. 또한 양건식의 「슬픈 모순」에서 '백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은 부모가 되거든 자식을 가르쳐 사회에 나서게 만들고 자식이 되거든 부모의 교양을 받다가 사회에 나서거든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 보내도록 활동할 것이올시다. 나는 이것이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행할 의무인가 하나이다.

형님! 나는 형님이 다 아실 듯하여 말 아니 하나이다. 그러나 다만 아버님이 야속한 것은 아직도 기력이 강장하신 어른이 날마다 아무것도 아니하시며 나에게 집안 생활의 전부를 떠맡기시고 아침 저녁으로 안 벌어들라고

야단을 치십니다.<sup>64)</sup>/(강조 인용자)

‘백화’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없고 돈을 벌어야 하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가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말보다도 자신의 생각, 개인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셈이다. 부연하자면 ‘백화’의 의식 속에는 부모란 존재는 자식을 사회인이 되도록 만드는 조력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백화’의 사회화를 막는 부모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의 자아의식이 대두되는 한편으로 『무정』과 같은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듯이 그들의 가출은 일면 나라전체를 계몽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먼저 계몽을 해야 한다는 당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나라전체를 위한 선각자로서의 대타의식 속에서 가출 모티프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전시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 이전의 세계가 국가에 대한 열정에서 반봉건의 문명개화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나 국가에 대한 열정이 현저하게 약화된 반면, 비로소 근대적 개인의 문제가 가출을 연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가출 경향은 본고의 분류에서 염상섭의 「만세전」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 3. 사회문제의 현실인식의 대두와 변혁의지

아래 <표3>은 근대적 개인이라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사회 속의 개인이라는 각성과 함께 살기 힘든 현실의 제도적 모순을 깨닫고 이러한 깨달음이 결국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변혁의지로 작용하게 되어 가출하는 모습을 <표>를 통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

64) 양백화, 「슬픈 모순」, 양백화 문집1, 춘천 :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5, p. 47.

작품	저자	주인공	발표 년도	가출 동기 및 원인	유형1	유형2
만세전	염상섭	이인화	1924	조선을 공동묘지라 인식하고 진실된 삶을 찾기로 하고 동경행을 결심한다.	도피 (탈출)형	알 수 없음
탈출기	최서해	박군	1925	제도적 모순에 반발 그 제도를 부숴야 한다는 목적으로 가출한다.	목적 지향형	상승성
명문	김동인	전주사	1925	'전주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버지 '전판서'로부터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방출형	하강
지형근	나도향	지형근	1926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관념 속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간다.	목적 지향형	하강
유모	최상덕	박서방 내외	1926	소작을 해도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서 집까지 집행 당하고 고향을 떠나 아내가 유모 생활을 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최서방	계몽묵	최서방 내외	1927	소작인인 '최서방'은 '송지주'의 빚을 어찌지 못하고, 결국 전답을 떼이고 고향을 떠나 서간도로 간다.	도피 (탈출)형	하강
낙동강	조명희	박성운	1927	황폐해진 고향에서 더 이상 살수 없는 현실 때문에 가출한다.	탈출 (도피)형	하강
12월 12일	李 箱	X	1930	적빈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을 간다.	목적성 도피 (탈출)형	하강
하수도 공사	박화성	서동권	1932	말많은 가정과 정의롭지 못한 학교 현실을 부정하고 일본행을 감행한다.	탈출 (도피)형	상승성
				의지를 꺾지 말고 굳건히 노동자의 길을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출한다.	목적 지향형	상승
흙	이광수	허 승	1933	변호사로 성공하고도 항상 농촌사업에 마음이 있던 '허승'은 있는 자들의 비리를 변호해야 하는 현실을 거부하며 아내 '정선'과 싸우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단순성 목적 지향형	상승
백구	염상섭	원 랑	1933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로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꽃나무 는심어 놓고	이태준	방서방 내외	1933	날로 피폐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고향	이기영	김희준	1933	조혼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반발하여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안갑숙	1934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반발하여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인간 문제	강경애	김선비	1934	농장주인인 '덕호'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성
		유신철		원하지 않는 '옥점'과의 아버지의 결혼 권유에 반발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첫째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가출한다.	목적 지향형	상승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구보	1934	직업과 아내가 없는 자의 외출.	단순성 외출	상승성
소낙비	김유정	춘호 내외	1935	거듭되는 흉작과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상록수	심훈	채영신	1935 ~ 1936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일본행.	목적 지향형	상승성
황혼	한설야	박여순	1936	사장 아들 '김경재'와의 관계를 그만두라는 주위의 압력과 스스로도 신분적 차이를 인식하고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무녀도	김동리	욱이	1936	무당인 어머니 '모화'와 동복남매 '냥이'. 기독교도인 '욱이'는 '모화'와의 충돌과 '냥이'의 자신에 대한 묘한 태도를 접하고 가출한다.	목적적 도피형	상승
메밀꽃 필무렵	이효석	성서방 네처녀	1936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쫓겨난다.	방출형	상승
날개	李箱	나	1936	'나'의 집나감은 가출이기보다 외출이다.	단순형 외출	상승성
마권	유항림	만성	1937	'만성'의 외출은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쁜척하기 위한 외출이다.	포즈형 외출	하강성
화상보	유진오	김경아	1938	사랑이라 생각하고 결혼한 남자 '한상권'의 부정을 알고 난 후 그를 떠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신개지	이기영	김순남	1938	약혼자 '강운수'의 감옥행과 더불어 순조롭게 결혼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집안의 결혼 권유가 생기고 이에 반발 공장에 취직하는 방식을 통해 집을 벗어난다.	도피 (탈출)형	하강
남생이	현덕	노마네 가족	1938	'노마'네 가족은 마름 '김오장'에게 반항한 이후 땅을 뜯기고 자식 공부와 땅섬지기를 장만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다.	목적성 도피 (탈출)형	하강

<표3> 사회문제의 현실인식의 대두와 변혁의지(1924년 ~ 1938년)

앞서 얘기한 사회의 문제가 다른 것들 보다 비로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염상섭의 「만세전」에서 보이는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다. 「만세전」에서의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한편으로는 정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묘지'로 인식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탈출기」, 「유모」, 「최서방」, 「낙동강」 등에서 보이는 가출의 모습은 모두 자신의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회의 속에서 가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적 생활공간의 붕괴이다.

김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의 충동(衝動)이며 확충(擴充)이라고 본다. 나는 여기서 무상의 법열(法悅)을 느끼려고 한다. 아니 벌써부터 느껴진다. 이 사상이 나로 하여금 집을 탈출케 하였으며, ××단에 가입케 하였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 끝보다 더 험한 ×선에 서게 한 것이다.<sup>65)</sup>(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은 최서해의 「탈출기」의 일절이다. 살기 힘들어 간도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살기는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 울분하고 있는 모습이 위 인용문이다. 그러한 현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주인공의 깨달음이며, 그러한 깨달음은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한 의지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의 충동(衝動)이며 확충(擴充)’이었다. 바로 당대의 살기 힘든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눈뜨는 당대 소설 속 주인공들을 가출케 했던 것이다. 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깨닫고 이를 변혁시키기 위한 의지가 주인공들을 가출하도록 만든 것이다. 당대의 살기 힘든 현실이란 조명희의 「낙동강」에서의 일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전략) - 예전에 중농이던 사람은 소농으로 떨어지고, 소농이던 사람은 소작농으로 떨어지고, 예전에 소작농이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풍지박산하여 나가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정들었던 동무들도 하나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도회로, 서북간도로, 일본으로 산지사방 흩어져 갔었

65) 김성수 편, 「탈출기」, 카프대표소설선I, 서울 : 사계절, 1988, pp. 100~101.

다. 대대로 살아오던 자기네 집터에는 옛날의 흔적이라고는 주춧돌 하나 볼 수 없었고(그 터는 지금 창고 마당이 되었으므로) 다만 그 시절에 사립문 앞에 있던 해묵은 느티나무만이 지금도 그저 그 넓은 마당터에 홀로 우뚝 서 있을 뿐이다.<sup>66)</sup>(강조 인용자)

바로 이 인용문은 황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고향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 생활 공간의 처참한 붕괴이며, 소설 「낙동강」에서 가출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타향살이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실질적 행동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박화성의 「하수도공사」에서의 ‘서동권’이라든지 『인간문제』의 ‘첫째’의 변모, 이광수의 『흙』에서의 ‘허송’, 『고향』의 ‘김희준’과 ‘안갑숙’ 등의 가출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 이튿날 첫눈은 목포 시가와 산 들에 고르게 쌓이며 나리는데 용희는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모든 객관적 정세가 나를 이곳에 머물르게 하지 않으므로 나는 이곳을 떠나고야 만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나도 종시 사람인지라 어찌 한줄기의 별두가 없으랴 마는 나는 보다 더 뜻있는 상봉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다. 군이 만일 나의 뜻을 알고 나를 사랑할진대 그대 스스로 모든 환경을 돌파하고 자체를 편달하여 나아갈수 있는 용기(勇氣)를 가진 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군세인 벗이 되어저라. 오직 바라는 바이니 원컨대 오직 끝까지 건강하라. 一九三一. 一二. 一三. 떠나는 동권」<sup>67)</sup>(강조 인용자)

「낙동강」에서와 같은 현실을 깨닫고 「하수도공사」에서의 ‘서동권’은 ‘뜻 있는 상봉’을 위해 떠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뜻 있음은 자신의 애인까지

66) 「낙동강」, 위의 책, pp. 271~272.

67) 박화성, 「下水道工事」, 동광, 1932. 5, p. 60.

도 두고 떠나는 강한 의지이며, 자신의 애인 또한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라고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편지의 마지막 '군세인 벗이 되어저라. 오직 바라는 바이니 원컨대 오직 끝까지 건강하라'고 애인에게 말하는 바는 떠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바도 된다.

지금까지 소설 속 주인공들의 당대 가출의 동인이 제도적으로 모순적인 사회에 대한 현실인식과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변혁의지 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당대의 가출이 이러한 양상이 주류이기는 하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부연하자면 이 시기에도 반봉건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국가의 기능은 이곳에서는 모두 상실되고 없다. 알다시피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이다. 일본은 3·1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그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들은 3·1운동이라는 대중적 역사체험을 겪으면서 식민지 자본주의라는 당대 역사적 현실을 한층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sup>68)</sup>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이란 결국 사회 속의 개인이라는 각성을 촉구한 것과 같다. 전시대의 가출이 개인의 발견을 통한 가출이었다면 이때는 사회 속에 개인이라는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흙』이나 『상록수』 등에서 여전히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출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조혼이나 원치 않는 결혼에 의한 반발로써 가출하는 모습 또한 『백구』, 『고향』, 『인간문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구』, 『고향』, 『인간문제』 등에서의 가출의 일단은 모두가 사회 속의 개인이라는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그들의 가출은 결국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것이며, 브나로드 즉, '민중속으로'와 같은 것이다. 그들이 가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의 지향점이 모두 거기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바로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의 대두와 변혁의지가 하나의 가출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

68) 김재용 外, 한국근대민족문학사, 서울 : 한길사, 1993, p. 287.

대한 인식과 변혁의지는 1939년 『대하』가 나오기까지 지속된다. 바로 이 『대하』를 비롯한 몇몇이 문제적이다.

#### 4. 전망의 상실과 전망의 제시

아래 <표4>는 카프가 해체된 이후 전망이 상실된 시점에서 소설 배경이 모두 현실을 떠나 개화기로 이동하고, 그 속에서 주인공들의 가출이 형상화된 작품들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당대 가출의 동인은 전망의 상실과 미래적 지평을 열기 위한 의지의 결과이다. 당대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상당수 반봉건을 부르짖으며 가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작품	저자	주인공	발표 년도	가출 동기 및 원인	유형1	유형2
대하	김남천	박형걸	1939	서자적 인식과 사회적 모순 속에서 갈등하며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성
		쌍네		'형걸'을 사랑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 '두칠'을 따라 노동자의 길을 떠난다.	도피성 목적 지향형	상승성
		두칠		아내 '쌍네'와 '형걸'과의 사이를 알게되고 이는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동자의 길을 나선다.	도피성 목적 지향형	상승성
사상의 월야	이태준	이송빈	1942	빛을 받아 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출한다.	목적 지향형	상승
				사랑하는 여인 '은주'와 결혼할 수 없는 현실에 부정적으로 반응, 이후 일본행을 결심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봄	이기영	유석림	1942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항상 가출의 욕망 속에서 지낸다.	도피성	상승
탑	한설야	민용룡	1942	양반인 '용룡'은 여종 '계섬'을 임신시키고 현실이 두려워 도망해버린다.	도피형	알수없음
		박우길		아버지 '박진사'가 자신의 동생인 '이순'을 자기 마음대로 간사한 '송병교'의 여느리로 보내려하자 공부하고 싶다는 '이순'을 데리고 고향을 떠난다.	도피 (탈출)형	상승성
		박이순				
고향 사람들	이근영	점외외 고향사 람들	1943	돈을 벌기 위해 북해도로 노동을 하러 떠난다.	목적 지향형	알 수 없음

<표4> 전망의 상실과 전망의 제시(1939년 ~ 1945년)

비평사적 정리를 떠나서 순수하게 작품만을 두고 보면 『대하』, 『사상의 월야』, 『봄』, 『탑』 등에서 보이는 가출 모티프는 기존의 대부분의 소설들이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자체를 소설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설 공간이 모두 개화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떠난 상상된 공간으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공간은 단순히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공간도 아울러 포괄하며, 소설 속에서 공간은 시간과 결합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소우주를 이루면서 단순히 작품의 배경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기도 하고 성격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동기가 된다. 공간의 이동을 통해 독자들은 상상력을 촉발하기도 하며 여러 공간의 체계적인 답사를 통해 작품의 주체를 파악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의 공간은 거시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심리적이고 지엽적이며 미시적인 세계일 수도 있다. 물론 공간적 요인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변별적인 특성을 달리한다.<sup>69)</sup> 그러한 공간 속에서 당대의 소설적 형상화는 모두가 반봉건의 문명개화를 집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설들이 발표된 시기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소설 창작이 불가능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할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는 당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반봉건의 청산문제는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가 전형기라고 하는 측면은 중요하게 인식된다. 카프문학이 퇴조하고 방향성을 잃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주조를 탐색하는 모색의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 속에서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없는 제반 상황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전망의 상실을 불러온 것과 같으며 따라서 소설 속 배경이 모두 개화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과거로 회귀함을 통해 그 속에서 새로운 주조를 탐색하기

69) 한용환, 소설학 사전, 서울 : 고려원, 1992, pp. 40~41.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과거 회귀적 방법은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현실을 떠나는 가출이었던 것이다. 작가들의 정신적인 가출이 있고, 그 다음 소설 속 가출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시기의 가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역사적 동인이란 한마디로 현실적인 전망의 상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래적 지평을 열기 위한 상상적 도피, 즉 개화기의 전환기적 현실로 환고향하는 정신적 탈출이다. 결국 그 속에서 형상화된 대부분의 작품, 즉 『대하』라든지 『사상의 월야』, 『봄』, 『탑』 등에서 주인공들이 가출하는 동기가 모두 봉건적 세계에 대한 거부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의 시작에서부터 다시금 미래적 지평을 열기 위한 의지표명이다.

끝으로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의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가출 모티프의 변모 양상은 국가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다시금 사회의 영역으로 변환하며, 이후 카프의 해체와 함께 전망이 상실된 상태에서 미래적 지평을 열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금 국가의 영역이었던 개화기로 귀환하나, 거기에는 이미 국가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반봉건의 문제만 남는 모습을 보여준다.

### III. 가출 동기와 결말의 결합양상에 따른

#### 유형화와 가치지향

아래 <표5>는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가출 동기와 작품의 결말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와 이 둘의 결합양상에 따라서 가출 모티프 소설을 유형화한 전체적인 <표>에 해당한다. 앞서 II장에서는 분절해서 사용하였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III장에서는 가출 모티프 소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방편으로 삽입했다.

이러한 접근은 가출의 내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귀향소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내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단히 안정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가출은 그 성격상 귀향에서 보이는 '길'과 같은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기는 어렵다. 가출은 반드시 돌아옴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가출의 내적 구조를 가출 동기와 그 결말의 결합양상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작품	저자	주인공	발표 년도	가출 동기 및 원인	유형1	유형2
혈의루	이인직	김옥련	1906 ~ 1907	'옥련'을 보살펴 주던 정상이 전사하자 그 부인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가출을 선택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구완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옥련'과 함께 유학길에 오른다.	목적 지향형	상승
		김관일		잃어버린 '옥련'은 찾지 않고 모순된 현실만을 개탄하며 부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목적 지향형	상승
은세계	이인직	최옥순 최옥남	1908	'최병도'의 친구인 '김정수'의 손에 이끌려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이후 작품 미완.	목적 지향형	상승
월하 가인	이해조	심진사 윤조	1911	몰락한 양반인 '윤조'와 '심진사'는 목서가로 노동이민을 떠난다.	도피 (탈출)형	상승 하강
추월색	최찬식	이정임	1912	어렸을 적 절친했던 '영창'을 못 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강제 혼인에 반발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간다	목적성 도피 (탈출)형	상승

무정	이광수	박영채	1917	'형식'만을 생각하며 지켜오던 정조를 유린당 하자 죽을 결심으로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개척자	이광수	김성순	1918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과 여성으로서 순결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슬픈 모순	양건식	백 화	1918	향학을 가로막고 돈을 벌어오라는 부모에게 반대하며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표본실 의청개 고리	염상섭	나	1921	알 수 없는 자살충동에 이끌려 집을 벗어나게 된다.	단순형	알 수 없음
이향의 루	茄子 峰人	복순네 가족	1921	가난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북간도로 떠나는 복순네 가족.	도피 (탈출)형	하강
환희	나도향	이영철	1923	'이영철'은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 '이상국'이 자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는 강제에 반발하여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성
만세전	염상섭	이인화	1924	조선을 공동묘지라 인식하고 진실된 삶을 찾기로 하고 동경행을 결심한다.	도피 (탈출)형	알 수 없음
탈출기	최서해	박군	1925	제도적 모순에 반발 그 제도를 부셔야 한다는 목적하에 가출한다.	목적 지향형	상승성
명문	김동인	전주사	1925	'전주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버지 '전판서'로부터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방출형	하강
지형근	나도향	지형근	1926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관념 속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간다.	목적 지향형	하강
유모	최상덕	박서방 내외	1926	소작을 해도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서 집까지 집행 당하고 고향을 떠나 아내가 유모 생활을 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최서방	계용묵	최서방 내외	1927	소작인인 '최서방'은 '송지주'의 빚을 어찌지 못하고, 결국 전답을 떠이고 고향을 떠나 서간도로 간다.	도피 (탈출)형	하강
낙동강	조명희	박성운	1927	황폐해진 고향에서 더 이상 살수 없는 현실 때문에 가출한다.	탈출 (도피)형	하강
12월 12일	李 籍	X	1930	적빈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을 간다.	목적성 도피 (탈출)형	하강
하수도 공사	박화성	서동권	1932	말많은 가정과 정의롭지 못한 학교 현실을 부정하고 일본행을 감행한다.	탈출 (도피)형	상승성
				의지를 꺾지 말고 굳건히 노동자의 길을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출한다.	목적 지향형	상승
흙	이광수	허 송	1933	변호사로 성공하고도 항상 농촌사업에 마음이 있던 '허송'은 있는 자들의 비리를 변호해야 하는 현실을 거부하며 아내 '정선'과 싸우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단순성 목적 지향형	상승
백구	염상섭	원 랑	1933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로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꽃나무 는심어 놓고	이태준	방서방 내외	1933	날로 피폐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고향	이기영	김희준	1933	조혼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반발하여 가출한 다.	도피 (탈출)형	상승
		안갑숙	1934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반발하여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인간 문제	강경애	김선비	1934	농장주인인 '덕호'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가 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성
		유신철		원하지 않는 '옥점'과의 아버지의 결혼 권유에 반발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첫째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가출한다.	목적 지향형	상승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구보	1934	직업과 아내가 없는 자의 외출.	단순성 외출	상승성
상록수	심 훈	채영신	1935 ~ 1936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일본행.	목적 지향형	상승성
황혼	한설야	박여순	1936	사장 아들 '김경재'와의 관계를 그만두려는 주 위의 압력과 스스로도 신분적 차이를 인식하 고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무녀도	김동리	욱이	1936	무당인 어머니 '모화'와 동복남매 '남이'. 기독 교도인 '욱이'는 '모화'와의 충돌과 '남이'의 자 신에 대한 묘한 태도를 접하고 가출한다.	목적적 도피형	상승
메밀꽃 필무렵	이효석	성서방 네처녀	1936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쫓겨난다.	방출형	상승
날개	李 箱	나	1936	'나'의 집나감은 가출이기보다 외출이다.	단순형 외출	상승성
마권	유항림	만성	1937	만성의 외출은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 임없이 바쁜척하기 위한 외출이다.	포즈형 외출	하강성
화상보	유진오	김경아	1938	사랑이라 생각하고 결혼한 남자 '한상권'의 부 정을 알고 난 후 그를 떠난다.	도피 (탈출)형	하강
신개지	이기영	김순남	1938	약혼자 '강운수'의 감옥행과 더불어 순조롭게 결혼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집안의 결혼 권유 가 생기고 이에 반발 공장에 취직하는 방식을 통해 집을 벗어난다.	도피 (탈출)형	하강
남생이	현 덕	노마네 가족	1938	'노마네' 가족은 마름 '김오장'에게 반항한 이 후 땅을 뜯기고 자식 공부와 땅섬지기를 장만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다.	목적성 도피 (탈출)형	하강
대하	김남천	두철	1939	아내 '쌍네'와 '형걸'과의 사이를 알게되고 이 는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동자의 길을 나선다.	도피성 목적 지향형	상승성

대하	김남천	박형걸	1939	서자적 인식과 사회적 모순 속에서 갈등하며 가출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성
		쌍네		'형걸'을 사랑하나 이루지 못하고 남편 '두칠'을 따라 노동자의 길을 떠난다.	도피성 목적 지향형	상승성
사상의 월야	이태준	이송빈	1942	빛을 받아 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출한다.	목적 지향형	상승
				사랑하는 여인 '은주'와 결혼할 수 없는 현실에 부정적으로 반응, 이후 일본행을 결심한다	도피 (탈출)형	상승
봄	이기영	유석림	1942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항상 가출의 욕망 속에서 지낸다.	도피성	상승
탑	한설야	민용룡	1942	양반인 '용룡'은 여종 '계섬'을 임신시키고 현실이 두려워 도망해버린다.	도피형	알 수 없음
		박우길		아버지 '박진사'가 자신의 동생인 '이순'을 자기 마음대로 간사한 '송병교'의 여느리로 보내려하자 공부하고 싶다는 '이순'을 데리고 고향을 떠난다.	도피 (탈출)형	상승성
		박이순				
고향 사람들	이근영	점외외 고향사람들	1943	돈을 벌기 위해 북해도로 노동을 하러 떠난다.	목적 지향형	알 수 없음

<표5>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가출 및 외출 유형 분류

## 1. 조혼과 강제혼인의 거부와 반봉건성

앞서 살펴본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조혼에 따른 가출 모티프는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서 원치 않는 혼인에 반발 가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거나 거의 전무하다고도 할 수 있다. 생각하기로는 당대 사회에서 현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혼에 반대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상은 그랬던 것 같지 않다. 이는 위 <표5>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위 <표5>에서 조혼에 반발 가출하는 모습은 『고향』의 '김희준' 정도다.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었다. 그러한 생활이, 일종의 풍습이 근대의 시작과 함께 몸을 망치게 하는 폐습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조혼이 나쁜 것이다라는 관념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조혼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강제 혼인이다. 조혼이란 그것이 의미하는 바, 말 그

대로 어린 시절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혼인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조혼 자체는 절대로 가출에 있어서 동기로 작용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하는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혼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듯 여자를 안긴 꼴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조혼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로소 조혼이 문제가 된다. 그때야 비로소 선택의 문제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를 든 '김희준'도 실상은 조혼자체가 가지고 온 문제가 그를 가출로 이끈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희준이는 결혼을 하고나서 바로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맘에 없는 결혼을 한 때문에 잠시도 집에 있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보다 무엇을 강제로 당한 것 같은 불만한 생각이 항상 흉중을 떠나지 않았다.<sup>70)</sup>(강조 인용자)

다시 말해서 혼인 이전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는 강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자유의지의 훼손이 불러온 결과이다.

한편 조혼은 부정일 수 있지만 긍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혼이 남자를 주체로 한 용어에 가깝다면 원치 않는 혼인은 여성에 입장이 중심이 된다. 어디까지나 조혼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결코 여성 자신이 주체는 아니었다.<sup>71)</sup>

춘광이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이 자기간에도 자갑스럽게 들리었다. 더구나 누가 듣는 데서 그런 소리를 할 때는 낮이 화끈 달아서 죽이고싶도록 성희가 미웠다. 그래도 남의 속을 모르는 계집애는 멧통이를 먹으면서도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여전하게 '아버지' 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 중략 —

70) 이기영, 『고향』, 서울 : 풀빛, 1991, p. 176.

71) 이영애, "여인시평-조혼의 비극", 신여성, 1934. 1, pp. 26~28.

모친이 웃는 바람에 그도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성희의 '유성방' 내력을 그 모친한테 듣고 같이 웃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혼이 저지른 한마당의 희비극이 아니냐. 춘광의 아내는 그 책임을 자기 혼자만 짚어진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분하기가 짝이 없었다.<sup>72)</sup>(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보듯 '춘광'이는 조혼함으로써 낳은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딸에게 '유서방'이라고 부르도록 시켰다가 이것이 아내에게 발각된 것이다. '춘광'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나고 보니 창피했던 것이다. 그것은 일면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디까지나 조혼은 남자의 입장이 중심인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 '춘광'의 부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조혼 시행 자체의 목적의 하나가 고분고분한 순종하는 며느리를 원했기 때문이다.<sup>73)</sup> 조혼이 그렇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맞아 들이는 아내 아닌 며느리는 대체로 동갑 내지는 신랑보다 한 살 정도 아래인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 보통은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이론상의 표준이란 것이 옳을지도 몰랐다. 상류층 가정에서는 일찍 출가시켜야 고생만 할 터이니 좀 키워서 보내자고 딸자식의 조혼을 기피하였고, 그대신 하류층은 생활도 곤란하니 하나라도 식구를 덜자하여 10세를 넘기기 무섭게 혼사를 서둘러댔던 것이다. 그 결과 상류층 가정에 5~6세나 연장인 아내들이 허다했다면 하류층은 동갑 또는 7~8세 아래인 새댁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혼사에는 물론 당사자들의 발언권이란 전연 개재될 수가 없었다. 만사가 부모네들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따라서 연애는 물론 맞선이란 것조차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였다.<sup>74)</sup>(강조 인용자)

72) 이기영, 『봄』, 서울 : 풀빛, 1989, pp. 169~170.

7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655.

74)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임종국선집3)(상),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5, p. 200.

인용문에서 보듯 상류층의 경우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자손을 얻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며, 하류층의 경우는 한 사람의 노동력이라도 늘려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예가 바로 『무정』에서의 ‘병국’의 경우 자신의 아내와의 나이차가 아내가 다섯 살 위이며, 『봄』에서의 ‘남술의 처’가 ‘남술’보다 열 살이 아래인 경우 등에서 확인된다. 다시 말해 이 모두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만들어낸 산물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조혼은 남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주체인 용어였다. 이러한 조혼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 생활이 한참 지난 어느 순간이다. 바로 자신을 각성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렇다.

“모르지요. 불만한 것이 없을 듯하건마는 애정이 아니 하는(가는) 게지요. 내가 오빠한테 물어 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저 보기가 싫구나 합니다. 아마 형님이 오빠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참 걱정이야요” 하고 고개를 흔들다. — 중 략 — “오 년 장이랍니다” 하고 웃으며, “형님이 처음 시집을 때에는 우리 오빠는 겨우 열두 살이더라고요…… 형님은 열일곱 살이구, 그러니 무슨 정이 있겠어요. 말하자면 형님이 오빠를 길러 냈지요. 한 것이 다 자라서는 도리어……” 하고 호호 웃는다. “오빠도 꼭 다정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언마는, 애정이란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하고 두 처녀는 두 내외에게 무한한 동정을 준다. 영채는, “그러면 어찌면 좋아요. 늘 그래서야 어떻게 사나요.” “요새 젊은 부부는 대개 다 그렇대요. 큰 문제지요. 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인데……” 하고 두 처녀가 마주본다.<sup>75)</sup>(강조 인용자)

인용문에서 보듯 상대에게 애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때가 되야 비로소 조혼이 문제적인 것으로 되는데, 사실 이 또한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사회의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양반 자제들 중 일부는 일본 유학을 통해 첨단 문화의 접한 남자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린다면 조혼으로 인해

75) 『무정』, p. 284.

아내를 부정하는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생각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조혼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그 속에서 전혀 애정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당대 애정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문제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애정이 얼마만큼 중요했기에 자신의 아내들이 부정되어야 했는가 하는 점이다.

1)한 달에 한두 번을 간신히 허락되는 남편과의 동침! 그 하룻밤조차 이렇게 뜬눈으로 새워야 하니 이런 환경에서 부부간의 애정이 싹틀 리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족속들은 여종 또는 기생들을 상대로 욕구불만을 풀곤 했는데 이려고 보니 어느새 '씨앗'이라는 달걀같은 존재가 생긴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투기란 금물이었다. 칠거지악에 강짜 심한 여편네는 쫓아내라 했으니 도리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다.<sup>76)</sup>(강조 인용자)

2)이런 풍토 속에서 자유연애의 사상이 싹튼 것도 결국은 조혼이라는 제도에서 물려받은 바 신세가 적지 않았다. 15세 미만에 사모관대를 쓴 서방님들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신학문을 닦으러 갔다. 동경바닥에서 시대의 첨단을 걷는 여성들만 구경하다가 돌아와 보니 구습에 젖은 아내란 쳐다볼 점이 없었다. '장가를 간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반항의 기치를 든 서방님들은 명월관의 은심이·배옥이한테 불공을 드리면서 무수한 가정비극을 초래하였다.<sup>77)</sup>(강조 인용자)

다시 말해 1)의 인용에서 당대 남편들에게 있어서 애정이란 성관계와 다름 아니었다. 성적인 욕망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굳이 아내가 아니어도 좋았다. 물론 여종이나 기생을 생각 할 수 있는 신분이란 물론 양반이 우선이겠다. 따라서 당대 남성들에게 있어서 아내들이 부정되어야 했

76) 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p. 202.

77) 위의 책, p. 206.

던 것은 당연하다. 애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당사자 서로가 상대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졌던 전근대적인 결혼 풍습은 사실 애정 자체보다 성관계가 우선한 관계였다. 또한 이들에게 전근대적 아내들이 밍게 보였던 것은 2)의 인용에서 보듯 근대적 문물을 접한 결과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본고는 애정 이전에 거기에는 미의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고 본다. 상대 여인이 공부를 많이 한 근대적인 여성이냐 아니면 전근대적 여성이냐는 기실 중요하지 않았다. 조혼에 따른 현실 부정은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은 것임은 여러 작품을 통해 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심하게 부정되어야 했던 이유. 거기에 바로 미의 문제가 숨어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모르고 결혼해도 예쁘면 그만이었던 것. 사실 남성에게는 조혼이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은 특히 양반의 경우 아주 쉽게 용인되었던 외도라는 탈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반이 아닌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같이 살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당대에 보이는 조혼의 폐해는 선택의 문제 이전에 아름다움의 문제가 더욱 중요했다고 보는 것이다. 『황혼』에서 보여지는 '현옥'과 '여순'사이에서 '경재'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여순'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여순'이 '현옥'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며,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다.

동시에 그는 나날이 현옥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현옥에게서 멀어지는 길은 말하자면 여순에게 가까워지는 길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여순이 때문에 현옥이와 멀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또는 이와 반대로 현옥이가 싫어지기 때문에 여순이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현옥이 얼굴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 때문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여순은 현옥이보다 훨씬 아름다운 편이었지만 그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 중 략 —

여순은 현옥이보다 훨씬 높은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만 그것뿐만은 아니다. 인간미라는 막연한 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써만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초월한 여러 가지의 미점(美點)을 가지고 있다고 경재는 생각하는 것이다.<sup>78)</sup>(강조 인용자)

‘현옥’은 ‘경재’ 자신과 함께 당대에 있어서는 최첨단의 교육을 일본 유학이라는 길을 통해 함께 한 사이이다. 또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서로 장래까지 약속한 사이이나, 이들의 좋았던 사이가 결정적으로 어긋나는 계기가 바로 ‘여순’의 출현이었다. ‘여순’의 미에 압도당한 ‘경재’에게 있어서 ‘현옥’으로부터 확인되는 것은 끊임없는 속물근성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현옥’을 그러한 이유로 내치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용문에서는 분명 ‘미점’이란 용어로 ‘여순’을 좋아하는 실제 이유를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으나, 그가 결국 자신은 ‘여순’과 같은 존재와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느낌을 어렴풋이 갖게 되면서부터는 다시금 ‘현옥’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현옥’이 보기에 ‘여순’은 자신의 교육정도와 부를 누르는 ‘자기의 존재를 누르는 여순의 아름다움’<sup>79)</sup>이 미웠으며, 딸과 반대로 현재도 신여성과 기생을 소실로 둔 ‘현옥’의 아버지 ‘안중서’ 또한 ‘여순’의 미모에 빠져 그를 욕망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미의 문제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아 각성을 통한 자유의지의 문제이다.

오히려 당대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원치 않는 결혼이었다. 조혼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가 바로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는 사실 탈출구가 없었다.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고 해도 남자처럼 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껏해야 『봄』에서 ‘남술의 처’처럼 현재의 남편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전부였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을 경우, 그녀들은 가출했던 것이다. 『추월색』의 ‘이정임’, 『개척자』의 ‘김성순’, 『백구』의 ‘원

---

78) 『황혼』, pp. 135~136.

79) 위의 책, p. 78.

랑', 『고향』의 '안갑숙', 『신개지』의 '김순남', 『탑』의 '박이순' 등 원치 않는 결혼에 반발하며 가출하는 인물들 모두 여자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쉽게 여성의 의식성장으로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당대의 조혼이나 강제혼인은 여성에게 훨씬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인간문제』의 '유신철'의 경우가 예외에 속하기는 하나, 그것도 나중에는 자신이 부정했던 논리에 스스로 함몰됨으로써 의미가 퇴색하고 만다. 남성에게 조혼이 문제되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미의 문제가 우선되는 전제로 작용했으며, 직접적으로 그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성들에게서였다.

그렇다면 그 여성들의 가출의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먼저 「추월색」에서 '정임'은 '영창'을 만나 결혼하게 되며, 『고향』의 '갑숙'도 마찬가지이다. 『개척자』와 「신개지」에서 보이는 가출들은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기생이 되는 것도 마지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백구』의 '원랑' 정도가 현실과 타협하나 문제는 '원랑'이 선택한 남자 자체가 현실 타협적인 인간이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영식이와 함께 나스자고 용단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돈이나 생활문제보다도 원랑이의 속을 알 수 없고 또 제 압히 굽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사치레로 이 혼인에 반대하고 다라난다고 서둘러 보이다가 주저안질지, 아모리근 일년이나 지내 보았지만 남의 속을 제배스 속가티 드러다볼 수도 없고 또 자기와 가티 사오십 원 월급에 목을 매고 네다섯 식구를 간신히 살려가는 처지를 생각하면 왕청 썩게도 부유한 집으로 드러가게 된다는 것은 상팔자에도 그런 상팔자가 업는 일인데, 만일 당자가 부귀를 버리고라도 자기의 애정을 살려 보겠다는 결심이 잇스면 모르거니와, 그러치 안타면 구태여 염의 업시 말릴 일은 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80)</sup>(강조 인용자)

'영식'은 현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달아난다고 해도 나중에 자

80) 염상섭, 『백구』, 서울 : 민음사, 1987, p. 24.

신과 같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부자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신의 의지로 상대를 이끌겠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애정을 살려 보겠다는 결심이 잇스면 모르거니와'와 같이 어디까지나 상대편인 '원랑'의 생각을 타진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으로서 책임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랑'이 자신의 의지를 보지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남자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백구』에서의 '영랑'이 했던 것과 같은 가출 모티프에서는 한마디로 여성의 의식 성장을 목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서양의 사고가 준 영향<sup>81)</sup>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영향으로 결국 1930년대 조혼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오히려 서구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은 남성의 조건을 보게 되고, 남성 스스로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것으로써 오늘날 전문 정도의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어떠한 조건을 구비한 남성들을 물색하는 가의 일반적 경향을 추출(抽出)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한말로 간단히 말한다면 「印象 좋고 健康한 體格의 所有者로 二萬圓가량 잇고 專門以上の 敎育을 받아 月收八十圓以上の 快活하고 文藝와 스포츠를 理解하고 京畿以北出身인 二十五, 六世난 남자」이라고 볼 수 있다. 아! 果然 어렵다. 조건이 이같이 구비된 이상형의 미혼남성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것이 반듯이 절대적 조건은 아닐 것이니 사나이 된 자 무릇 낙심말고 이 조건에 가깝도록 노력할지며 여성된 이 지나친 고집을 세움없이 되도록 양보해서 오직 사랑의 꽃과 행복의 열매가 무수히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sup>82)</sup>(강조 인용자)

81) 신영숙은 일제식민지사회에서나마 전통적 사상, 사회질서는 붕괴, 해체되고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 등 서양사상의 충격 앞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고 창조하려는 몸부림이 연애 및 결혼관에 영향을 주었는데, 하나는 향락적인 자유연애 결혼관이며 다른 하나는 건전한 신연애·결혼관이라고 한다./ 신영숙, “일제하 신여성의 연애·결혼문제”, 한국학보, 통권45호, 일지사, 1986, p. 188.

82) “오늘의 인텔리—결혼적령기 처녀의 이상남”, 여성, 1938. 3, p. 35.

이제까지 조혼이나 강제혼인에 따른 가출 모티프를 가출의 동기와 그 결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동기가 물론 소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바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가출의 한 양상이다. 이러한 동기와 더불어 가출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강제혼인에 따른 가출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 확인되는 가출의 결말은 대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말을 도정하거나 아니면 죽음까지도 감수해 가며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적 개인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근대적 가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조혼이나 강제혼인을 거부하며 가출했던 것은 모두가 반봉건을 기치로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에서의 서양식 사랑의 재현의 등장은 이 땅에서 서양식 ‘나’(I, je, Ich)가 탄생하는 근대적 자아(自我)의 계보학이자, 근대의 내면적 사랑은 정체성 형성의 계기였다<sup>83)</sup>고 할 수 있다.

## 2. 물질 지향성과 편입적 세계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이란 절대적이다. 기형적이거나 한국 사회는 이미 개화기부터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와는 달리 우리 문학에서 돈을 주 소재로 다룬 작품은 흔치 않다. 기껏해야 그나마 『삼대』 정도에서 돈이 소설의 긴장을 이끌고 있는 작품에 해당한다. 화폐란 자본주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화폐는 자본주의에서 그 어느 것도 교환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의 돈의 추구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편입적 세계관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행세할 수 있는 사회가 비로소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

83) 최정운, “사랑의 재현 : 전통적 사랑 이야기와 근대적 사랑 이야기의 차이와 의미”, 문화과학, 통권24호, 문화과학사, 2000(겨울), p. 291.

이다.

타율적 개화는 어찌됐든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이거나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화를 도정했다. 따라서 당연히 돈을 목적하는 가출도 있는 것이다.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한 가출이라면 이는 큰 의미가 있다.

이언 와트는 근대적 소설의 발생을 18세기 영국 시민계급의 성장과 함께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근대적 의미의 소설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근대적 소설의 발생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믿어져온 근대적 의미의 소설인 리처드슨의 「패밀리」를 뒤로하고 디포우의 「로빈슨 크루소」에 주목한다. 근대를 개인주의의 발생과 함께 보고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디포우의 주인공들은 몰 플랜더즈, 자끄 대령, 싱글톤 대위처럼 가족이 없거나 록사나와 로빈슨 크루소우처럼 젊은 나이에 가족을 떠나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너무 지나친 중요성을 부과할 수는 없다. 모험 소설들이란 인습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로빈슨 크루소우」에서 주인공은 집도 가정도 있지만 <경제적 인간>이라는 고전적인 이유 때문에 집과 가족을 떠난다.—이것은 그의 경제적인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자연의 성질 안에 있는 뭔가 숙명적인 것이> 그를 바다와 모험으로 불러 내어 그가 태어난 신분—<하층 생활중 높은 위치>에서 <일에 정착하지>못하게 한다. 그의 아버지가 그 신분에 대해 찬사를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후에 그는 <제한된 욕망>에 갖는 부족한 것, 그의 <원죄>로서 <하나님과 자연이 그에게 부여한 신분>에 대한 불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때 그의 부모들과 그 자신간의 논쟁은 자식으로서의 애정이나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떠나는 것, 혹은 머무르는 것, 어느 쪽이 물질적으로 가장 이득이 있겠는가에 관한 논쟁이다. 양쪽 다 경제적인 논쟁을 주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물론, 크루소는 사실상 그의 <원죄>로 인해 얻는 바가 있으며 자기 아버지보다 더 부유해진다.

크루소우의 <원죄>는 진정 자본주의 자체의 역동적인 경향으로서, 자

본주의의 목적은 현재 상태를 그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집을 떠나서 태어난 운명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개인주의자의 삶의 양상이 보여 주는 중요한 특징이다.<sup>84)</sup>(강조 인용자)

소설의 발생하게 된 계기의 하나가 근대적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보여주는 자본주의적 속성이다. 다시 말해서 인용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의 경제적 개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가는 가출의 일단을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집을 나가고 나가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한 이득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언 와트가 근대적 소설의 발생으로 중시하는 디포우의 소설에서 보여지는 가출이 일반화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으나 그 가출이 하나의 근대성을 지칭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우리 근대소설에 있어서도 이렇듯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한 가출의 일단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분류에서는 「지형근」, 「12월 12일」, 『인간문제』 「고향사람들」 등에서 돈을 위한 가출이 나타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당대 우리의 자본주의는 아직 성숙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한 연유로 예문에서와 같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편입으로써의 돈의 추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12월 12일」이나 『인간 문제』 그리고 「고향사람들」 등에서 주인공들이 가출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가난이었다. 이것에 대한 거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근대소설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 것이다. 서구에 있어서 돈의 추구란 높은 교양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순수한 교양적 측면으로서의 돈의 추구하고 한국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돈의 추구는 다른데 그것은 돈을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가 이미 다르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12월 12일」을 비롯한 우리의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돈의 추구는 살아남기 위해 악착 같이 가난에서부터 벗어

---

84) Watt, Ian., 전철민 역, 小説의 發生, 서울 : 열린책들, 1988, p. 85.

나고자 하는 것이지만, 순수하게 돈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배고픔이 해결된 이후의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돈을 추구하는 것임으로 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지형근」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였다. 자기가 노동을 하러 피나리붓짐을 나가는 이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 양반도 되고 남을 부릴 수도 있으니 자기도 돈을 벌어서 다시 옛날의 문벌을 회복하고 남도 부려 보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한다. 숙명적으로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단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문벌만 있으면 무슨 짓—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하였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괜찮다는 관념이 한층 깊어지며 그는 얼핏 목적지에 가서 돈을 벌고 오고 싶었다.<sup>85)</sup>

(강조 인용자)

「지형근」에서 ‘지형근’은 본래 양반이었으나 현재는 몰락한 상태이다. 그에게 있어서 ‘돈’이란 과거의 ‘문벌’과 같은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이러한 관념은 자연 돈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 경우가 『인간문제』나 「고향사람들」과는 다른 것은 가난 이전에 돈의 추구가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돈의 대한 열정을 순수하게 세상에 대한 편입으로만 볼 수만은 없는 것은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지형근’이 돈을 목적하는 궁극적인 이유란 돈 자체이기 보다 예전의 문벌을 대신하는 돈에 대한 복수심과 그러한 단순한 물질 지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난으로 인한 돈의 추구에 해당하는 작품인 「12월 12일」, 『인간 문제』, 「고향사람들」 이전에 「슬픈 모순」에서도 부모가 자식인 ‘백화’에게 ‘아침 저녁으로 안 벌어들인다고 야단’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돈이 궁극적인 행동추구의 목적은 아니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85) 주종연 외, 「지형근」, 나도향 전집(상), 서울 : 집문당, 1998, p. 308.

것과 같이 '태어난 운명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인주의자의 삶의 양상'에 해당하는 돈을 목적인 가출을 보이는 소설은 그나마 「12월 12일」의 'X'나 『인간 문제』의 '첫째' 등이다. 「12월 12일」은 적빈을 벗어나기 위한 가출이며 이는 『인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 문제』에서 '첫째'는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노동자의 길로 나서는 것이다.

『그럼 나 가 보겠수』

공장에서 돈받고 일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의 캄캄하던 앞길에는 다시 서광이 환하게 비쳐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시라도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서방, 난 그럼 이번 나가서는 평양이나 서울까지 가 보겠수』

— 중 략 —

『이서방 잘 있수. 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올께……어머니보군 잠자코 있수.』

이서방은 요새 첫째가 만들어 준 나무다리를 짚고, 그의 뒤를 따랐다.

『이애 나두 잘 몰라, 공장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 네가 읍에 들어가서 잘 알아보고 떠나라. 그저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첫째는 아무 말 없이 달아난다.

이서방은 기가 나서 쫓아간다. 이제 떠나면 다시 볼지 말지한 첫째! 그는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잡아 보고 싶은 맘에, 허둥지둥 동구 밖을 벗어났다. 그러나 첫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저 산등 위로 그믐달이 빼죽이 내밀었다.<sup>86)</sup>(강조 인용자)

'첫째'는 배가 고프다는 것. 그것이 싫었다. 가난했던 것이다. 가난은 타고난 그의 운명이었다. '첫째'의 가출이 앞서 살펴 본 인용문에서와 같은 논쟁까지 수반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면 충동적이고 돌발적이거나, 공장이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자신

---

86) 강경애, 『인간 문제』, 강경애 전집1, 서울 : 열사람, 1992, p. 122.

의 타고난 가난을 그런 식으로라도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그곳에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가출을 경제적 개인의 모습으로 보면, 그의 가출 동기와 그 결말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

‘첫째’는 노동현실에 모순을 깨닫고 계급의식에 눈을 떠간다. 그는 지식인 ‘신철’과 자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신철’이 노동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다가 결국은—‘신철’ 또한 그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결론 이후—하나의 생활인인, 본래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며 ‘첫째’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선비!」

그도 모르게 그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우뚝 섰다. 그의 앞은 아득해지며 어떤 암흑한 낭 아래로 채여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어려서부터 그리워 하던 이 선비, 한 번 만나 보려니……하던 이 선비! 이 선비가 이제 저렇게 죽지 않았는가! 찰나에 그의 머리에는 아까 철수에게서 들었던 말이 번개같이 떠오른다.

「돈 많은 계집을 연구, 취직을 하구……」

그렇다. 신철이는 그만한 여유가 있었다. 그 여유가 그로 하여금 전향을 하게한 게다. 그러나 자신은 어떤가? 과거와 같이, 그리고 현재와 같이 아무런 여유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신철이는 길이 많다. 신철이와 나와 다른 것이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첫째는 눈을 부릅뜨고 선비를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사모하던 저 선비! 아내로 맞아 아들 딸 낳고 살아 보려던 선비! 한 번 만나 이야기도 못 해 본 그가 결국은 시체가 되어 바로 눈앞에 놓이지 않았는가! — 중 략 — 이 인간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하여 몇천만 년을 두고 싸워 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갈 인간이 누군가<sup>87)</sup>?(강조 인용자)

---

87) 위의 책, pp. 263~264.

소설은 결말에서 '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갈 인간이 누군가?'라고 독백처럼 얘기하며 끝내고 있다. 그 대답은 '첫째'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가 깨닫는 것은 본래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 있으며, 무산계급이 젊어져야 하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 '첫째'는 이를 인간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란, 자신과도 같은 무산계급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신철'을 통해 배운 것은 결코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대신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결국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던 '첫째'는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에 뛰어 들게 되며, 모순된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성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소설은 성장소설로도 볼 수 있다. 철부지였던 첫째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이란 결정적으로 '선비'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첫째'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상황 가운데 한 명의 노동자로서 가족을 떠나고 있으며, 또한 국가를 떠나고 있다. 오로지 노동자라는 이익을 위해 그의 모든 유대는 작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순수하게 돈을 위해 가출하는 모습은 우리의 근대소설에서는 거의 발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나, '첫째'의 가출은 유일하나마 의미가 크다.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고 사회에 편입하기 위한 집나감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 명의 성숙한 근대적 개인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찾아가는 도정을 이 작품은 보여주는 것이다. 일면 충동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던 가출은 그 결말에 있어서 성숙한 근대적 개인으로 성장한다는 결말을 도정한다.

### 3. 종교적 갈등과 근대적 개인의 면모

식민정책이란 언제나 정치적인 협상 이전에 외교적 보호 또는 협력이란 감언이설 아래 종교가 먼저 침투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식민정치의 대중을

잡은 대영제국도 정치와 군사와 종교를 교묘히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군사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는 제도적으로 옹아매며, 종교는 심리적인 위안과 유혹을 주는 등 이 세 가지를 잘 이용하면 식민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 영국이 기독교와 군사를 갖고 식민정책을 하였다고 한다면 일본은 불교와 군사로써 식민정책을 꾀했다.<sup>88)</sup> 그러나 이것은 비단 불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불교로써 식민정책을 꾀했던 것은 조선이 지형학적으로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에 우선권이 주어졌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이전에 서구 열강에게 조선이 먼저 노출되었다면 불교의 자리는 기독교가 대신 했을 것이다.

위 분류에서 보여지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가출 모티프는 나도향의 「환희」, 김동인의 「명문」<sup>89)</sup>, 김동리의 「무녀도」 등이다.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유입된 기독교는 그 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무속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같이 융합하지 못하는 유일신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한 기독교는 전통적 무속신앙을 우상숭배로 돌려버렸던 것이다. 「환희」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이영철'과의 충돌, 「무녀도」에서의 어머니 '모화'와 '육이'사이의 대결은 이를 잘 보여준다. 후자의 대결구도가 젊은이가 낡은 세대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라면, 전자는 낡은 세대에 젊은 세대가 반발하는 전혀 상이한 구도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환희」에서는 아버지 '이상국', 즉 낡은 세대로 대표되는 인물이 기독교에 심취한 반면 「무녀도」에서는 '육이', 즉 신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기독교에 심취해 있다. 「환희」가 1923년 작품이며 「무녀도」는 1936년 작품이다. 이 두 작품간의 시간적 거

8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대계 V-문화운동·민족운동,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77, pp. 134~135.

89) 본 작품 「명문」은 가출양상에 있어서, 그 원인이 방출형으로 나타난다. 주인공 '전주사'는 철저하게 개인적 측면에서 기독교를 믿고는 있으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구도가 아버지로부터 배제되어 버린다는 측면을 고려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본 작품의 의도는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리는 십 년 이상이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낡은 세대와 신세대의 종교간의 갈등의 대결구도가 흥미 있다. '영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발한다.

1) 자기 아버지는 죽어 천당 갈 것을 다만 단순한 동기로 믿게 되었지만 그는 그렇게 쉽게 천당과 지옥을 믿지는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아담 이브를 자기의 또한 온 인류의 시조로 믿었지만 우리의 몇만 년 전에는 사람이 모두 원숭이와 같았겠다는 다아윈의 진화론을 배운 그는 그렇게 모순되는 전설을 믿지 못하였다. 천문학에서 성무설을 배운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 아니치 못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나서 죽어지면 어떻게 되나하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의심을 품기는 품었으나 영혼이란 참으로 사람이 죽어서 단독으로 어디로 가 버리는가? 의심하는 그는 그렇게 쉽게 천당과 지옥을 믿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를 참으로 철저하게 알고 싶었다.

이러한 줄을 아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는 그에게까지 예수를 믿으라 권하였다.<sup>90)</sup>(강조 인용자)

2) 자기 아들을 자기 이상의 공부를 시켜 놓고도 그의 사상과 모든 것이 자기보다는 못하다는 그는, 더구나 친권(親權)을 절대로 내세울 줄만 아는 그는 언제든지 자기 아들을 어린아이라 하여 자기 명령 아래 절대로 복종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법률로까지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까지 자기 아들에게는 강제하려 하였다. 강제하여 자기 아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는 시늉만 보이더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sup>91)</sup>(강조 인용자)

1)의 인용에서 '영철'이 아버지 '이상국'에게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은 과학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을 배운 '영철'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창조설을 비롯한 천당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90) 주종연 외, 「환희」, 나도향 전집(하), 서울 : 집문당, 1988, pp. 124~125.

91) 위의 책, p. 125.

아버지가 기독교를 믿으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2)에서의 모습은 말 그대로 봉건적 가정환경에 반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아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칸트가 말한 후견인을 배제하는 모습을 그에게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성년으로서의 모습. 여기에 더 이상 전근대적 가치관이 설자리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전혀 상반되는 「무녀도」를 보자. 「무녀도」에서는 아들이 그 부모에게 반하는 모습을 취한다. 어머니 '모화'는 무당이며 아들 '욱이'는 한참 기독교에 심취한 인물이다. 이들이 융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이 미쳐 날뛰는 것은 귀신이 씩었기 때문이며,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끝끝내 보지하는 것은 우상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결론은 '욱이'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적 입장이 우세하게 되면서 결국은 '모화'의 죽음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1)이 근대적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2)는 무엇이 라고 보아야 하는 가다. 기독교의 유입은 하나의 근대성이다. 서구지향이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서구와 같은 종류의 신이 없던 우리에게 신을 제공하면서, 서구 근대성과 유일신의 숨겨져 있는 연결 고리를 보여주었다.<sup>92)</sup> 또한 한국이 기독교와 접촉하려고 한 것은 "근대화"를 위한 문화적 욕구 때문이었다.<sup>93)</sup> 그 서구지향 속에서 '욱이'는 당연히 전근대적 가치관이라 생각되는 것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독교가 근대적인 것이다. 전자에서 보여지는 어리숙한 기독교적 집착을 보이는 아버지 '이상국'에게 대항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은 없다. 따라서 당연히 거부로써 모든 갈등은 일단락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자는 다르다. 어머니는 토속신앙의 신봉자이며 대리자이다. 아들은 신종교의 파수꾼이다. 당연히 이들이 충돌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이들간의 대결 구도에 있어서 아들은 전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논리로 대항하는 것이 아

92) 장성만, 앞의 글, p. 294.

93)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 32.

닌 자신만의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항하는 것이다. 이들의 대결이 비극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한 배에서 나고, 다시 말해 한 민족이나 이들은 다르다. 결코 같을 수 없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다. 이는 전근대와 근대의 대결 구도로 압축된다. 전근대가 '모화'이며 근대가 '육이'이다. 이들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며, 후자가 승리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것은 근대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육이'는 하나의 근대적 개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두 작품들이 보이는 결말은 흥미롭다. 먼저 전자(「환희」)는 1)의 인용에서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를 참으로 철저하게 알고 싶었다'라고 술회하는 부분과도 상통하는 것처럼 '영철'은 신분적 차이를 넘어 자신을 사랑했던 기생 '설화'의 죽음을 목격하고 서러운 눈물을 흘린다. 그는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이다. 그것은 신분적 차이를 뛰어 넘는 사랑이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이상국'의 기독교적 귀의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무정』에서의 '선형'의 아버지 '김장로'가 그랬던 것과 같은 자기 합리화가 '이상국'에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자기 첩을 어찌하나 하였다. 딸까지 낳은 자기의 첩을 내버리자니 인정에 그러할 수 없고 또 그러나 날마다 그를 대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은 편치 못하였다. 그래 나 중에는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동대문 밖에 집을 하나 사고 자기 첩과 혜숙을 거기 나가 있으라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고생하여 벌지 않은 재산이라 그리 귀여운 것을 아지 못하는 그는 또한 물질로써 자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에 가서 상 받을 것이 올 줄 아는 그는 자기 첩의 모녀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뒤를 보아 주었다. 그러나 아주 잊지는 못하였다. 어떤 때 눈 무엇인지 모르게 섭섭도 하고 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여 혼자 어두운 방에서 눈물까지 흘리었다. 그렇다고 다시 불러 올 용기는 또 없었다.<sup>94)</sup>(강조 인용자)

94) 주종연 외, 「환희」, 앞의 책, p. 124.

‘이상국’의 위와 같은 행동은 『무정』에서의 ‘김장로’가 갖는 변민과 유사하다. ‘김장로’는 자신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이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 그것이 기독교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변민하게 되는데, 「환희」에서의 ‘이상국’도 마찬가지다. 『무정』에서는 본처인 아내가 죽음으로써 첩이 새롭게 아내가 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나, 「환희」에서는 첩을 집에서 내보냄으로써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아주 잊지는 못’하는 문제가 남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은 아니다.

두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곧 간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가운데, ‘이상국’은 젊은 시절 자신의 방탕함을 기독교에 귀의함으로써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여하튼 그러한 아버지의 종교적 강압에 못 이겨 가출한 ‘영철’은 스스로 기독교적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가출은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반면 후자의 ‘욱이’의 가출 또한 자신이 의지하는 바와 같이 마을 전체로 기독교가 퍼져나간다는—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망과도 같은 일이지만—그의 승리는 미신을 타파했다는 근대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시의 기독교인의 대사회적 태도는 하나로 한국의 풍속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점을 비판 시정하려고 했다. 그들은 종교 신앙면에 있어서 불교나 마귀를 버리고 바른 진리로 돌아오기를 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95)</sup>

「무녀도」에서의 ‘욱이’의 삶이 미신타파의 모습으로 근대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모화’의 삶은 근대를 초극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최후까지 자신의 삶을 보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95) 이만열, 앞의 책, p. 64~65.

이날 밤 모화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정숙하고 침착한 빛이 서려 있었다. 어제같이 아들을 잃고, 또 새로 들어온 예수교도들로부터 가지 각색 비방과 구박을 받아 오던 그녀로서는 의아스러우리만큼 새침하게 가라앉아 있어, 전날 달밤으로 산에 기도를 다닐 적의 얼굴을 연상케 했다. 그녀는 전날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아양을 부리거나 수선을 떨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호화스러운 전물상들을 둘러보고도 만족한 빛 한 번 대지 않고 도리어 비웃듯이 입을 삐죽거렸다.

“더러운 년들, 전물상만 잘 차리면 그만인가.”

— 중 략 —

모화의 몸은 그 냇두리와 함께 물 속에 아주 잠겨 버렸다. 처음엔 췌자 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버리고 냇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렸다.<sup>96)</sup>(강조 인용자)

‘모화’가 ‘더러운 년들, 전물상만 잘 차리면 그만인가’라고 빈정거리는 모습은 흥미 있다. 이제 무당이라는 존재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신실치 못함은 아무리 전물상을 잘 차려도 이는 어디까지나 마음이 거세된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비웃음은 그들의 겉치레에 불과한 행태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는 굶판은 결국 ‘모화’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무당이라는 그녀의 삶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와해되어 감을 절감하면서 스스로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경적 삶의 형식이라 보고, 이것이 근대적이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변해만 가는 주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주체성의 논리이기 때문이다.<sup>97)</sup> 이로써 ‘육이’와 ‘모화’의 자리는 역전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들의 양태는 ‘영철’과 ‘육이’ 등의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면모와 ‘모화’의 근대의 초극으로서의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96) 「무녀도」, pp. 262~265.

97) 김윤식, “우리 근대문학 연구의 한 방향성”, 김성기 外, 앞의 책, pp. 256~259.

#### 4. 성찰과 모색을 위한 가출과 자아성장

앞서 가출 모티프를 분류한 <표5>에 의하면 1935년 이후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의 양상은 인상적이었다. 이 시기의 가출은 작품 『황혼』 등에서 이전의 문학을 잇고 있는 모습과 반면에 공적 인간과는 아주 이질적인 모습의 가출 모티프가 「메밀꽃 필 무렵」, 『화상보』 등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특히 『대하』, 『사상의 월야』, 『탑』, 『봄』 등의 소설에서는 그 공간배경에 있어서 가출하는 이들이 모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떠나 개화공간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을 가족사 소설의 측면에서 개인이 유년기에 체험한 원시공동체의 풍속을 감동적으로 묘사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함으로써 역으로, 앞으로 와야 할 당위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낳는 것<sup>98)</sup>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는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전망의 부재는 과거를 추억하게 한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결코 미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닐 터, 새롭게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래 논의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고향>의 인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는 30년대 후반의 장편소설들에 그대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하>, <봄>, <탑> 등에는 경향소설의 주인공들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개화기에 어린 소년들이 가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필자는 이 가출소년들이 후에(작품이 쓰여진 시기로 본다면 전이지만) 경향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향>이나 30년대 후반의 소설들에 나타나는 가출의 주요 동기가 반봉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나타난다는 점이다. 조혼에의 강한 불만이나 삭발 등을 통해 드러나는 봉건적 관습에 대항하는 의식의 표출은 그 행위들이 당대 민중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사실이라는 점

98) 위의 책, p. 123.

에서 독자 대중과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김희준이나 안갑숙이 중심인물로서 소작쟁의를 이끌어 나갈 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되는 근거에는 이 두 인물이 봉건적 관습과의 대항을 통해 자각의 과정을 겪게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고향>이 거둔 성과나 카프가 봉건적 잔재와의 의식적 투쟁을 강령으로 내세운 점을 주의 깊게 바라볼 때 프로문학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99)/(강조 인용자)

본고는 위 논의를 수용 좀 더 폭넓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소설들에서 보이는 가출의 일단은 하나 같이 시대에 있어서는 개화기이며, 가출 양태는 봉건적 가치관에 반발하며 집을 벗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비평사적으로 볼 때 이미 프로문학이 모두 전향을 한 이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들이 다시금 개화기로 회귀하고 있다는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다. 치열하게 프로문학을 주도했던 작가들이 다시금 개화공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 이 시기는 전형기에 해당한다.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을 시도했던 이러한 시기에 그들이 개화공간으로 시점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 일관되게 이 기간을 관통하며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의 한 유형이다. 반봉건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반봉건의 명제가 개항 이후 현재까지 결코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유교에 기반 한 봉건적 가족의 역학관계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합방전과 비슷했다100)는 사실을 미루어 확실해진다. 반봉건이 이루어진 적인 없다는 사실. 그러한 상태에서 근대성의 도출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카프문학운동의 선봉에 섰던 이들이 전형기에 쓴 소설들의 배경이 하나 같이 개화기이며, 주인공들의 가출이 또한 반봉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

99) 김동환, 앞의 책, p. 64.

100) 김윤식·김현, 앞의 책, p. 52.

자세한 형걸이의 설명과 그 설명 속에 얽히고 설킨, 형걸이와 형걸이 모친 윤씨의 고민을 낱낱이 듣고, 문 교사는 신분(身分)의 차별이나, 적서의 구별관념이나가, 모두 어떤 시대의 찌꺼기인가를 소상하니 가르치고, 지금 문명하는 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비복을 해방할 것과, 미신을 타파할 것과, 조혼 사상을 물리칠 것과, 생활 습속을 개량할 것을 말하고, 이것을 위하여 몸을 바침이 청년남아의 할 것이라 가르쳤다.<sup>101)</sup>(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문 교사’는 분명 반봉건의 문명개화를 얘기하고 있다. 서자인 ‘형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르침은 자조적인 변화의 힘으로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나중에 ‘형걸’에게 있어서 ‘문선생’은 ‘전도자의 지위에서, 수단을 조력해 주는 원조자의 지위’로 내려서게 된다. 그만큼 ‘형걸’은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성장의 계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형걸’에서 ‘부용’을 사랑하는 ‘형걸’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반봉건 의식은 작품 『봄』에서는 서리를 예로 잘 보여지고있다. 예전의 서당이라는 선비 양성소는 대개 양반자제들이 다녔으며 그들의 서리는 용인되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용인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떤 선비가 될 것인지 민중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근래에는 양반이 몰락하고 서당이 몰락하면서 서리는 도둑질로 그 성질을 달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대 작품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주제는 반봉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옛날로 돌아가 보자. ‘홍길동’은 서자이며 ‘형걸’ 또한 서자이다. 이 둘은 현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비판은 그들에게 가출을 꿈꾸도록 만들며 실행토록 한다. 이들의 가출 동기는 봉건적 사회가 만든 모순 때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게 된다. 그들의 가출동기는 같았던 것이다. ‘홍길동’에게 상공이라는 존재자체가 봉건적인 질서 자체였듯

---

101) 『대하』, p. 179.

‘형걸’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박성권’자체가 봉건적인 질서였다.<sup>102)</sup> 그렇다면 이들의 결말을 살펴보자. 『홍길동전』은 결국 ‘홍길동’ 자신만의 이상향을 찾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그것은 현 사회체제 속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결코 용인될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이며 결코 사회로 다시금 환원되지 않는 가출인 것이다. 그러나 『대하』의 ‘형걸’의 가출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말은 다르다. ‘형걸’은 앞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고향』의 ‘김희준’이거나 『하수도공사』의 ‘서동권’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가출은 사회 속에 수용되어 사회를 향해 열려있다. 이 점이 바로 고소설과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가출 모티프의 차이이다. 결국 사회를 규지하는 유교 철학의 존속과 이것이 근대라는 미명아래 소멸되어갔던 과정에서 보여진 결과에 해당한다. 결국 근대소설에서 나타나는 가출은 전근대를 뛰어넘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을 떠나 개화공간으로 이동했던 것은 새롭게 미래적 지평을 열기 위한 방법론에 해당한다. 또한 그러한 방법론이란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성숙을 향한 거듭나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하』의 결말을 비롯해서 『사상의 월야』, 『탑』, 『봄』 등을 모두 근대적 개인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성숙과 미성숙의 경계에 가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출은 미성숙의 고백이면서, 또한 성숙의 시작이다.<sup>103)</sup> 미성숙을 지나 성숙으로 가는 계기. 거기에 가출이 있었고 그 가출은 전근대적인 봉건적 가치관과의 결별이었다.

결론적으로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가출 모티프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반봉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저러한 가출동기가 있으나 이들을 모두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반봉건이었다는 것은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명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끝으로 근대소설에서 나타나는 가출이 공통적으로 반봉건을 목적했던

---

102) 채호석, 앞의 책, p. 372.

103) 위의 책, p. 373.

바대로 그 가출 자체가 전근대를 뛰어넘는 수단이었다고 보면, 앞서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현대의 가출은 탈근대를 향한 방법일 수 있다. 현대에는 후기 산업사회의 문화 논리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미명아래 일면 가출을 해체적 징후로 볼 수 있다.

## IV. 가출 모티프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

### 1. 한국 근대소설과 가출의 내적 형식화

지금까지 한국 근대소설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II장) 및 유형화와 이를 통한 가치지향(III장) 등을 고찰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었던 것은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의 한국 근대소설에서 가출 모티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렇듯 광범위하게 가출 모티프가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반대로 귀향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귀향이 한국 소설사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6·25라는 민족적 비극이 있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향이나 탈향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한 이향이나 탈향은 가출자의 직접적 동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가출의 동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커다란 민족적 사건들이 만들어 놓은 이향이나 탈향은 당연 귀향이란 부분에 무게를 두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귀향이 주목을 받아온 반면에 가출이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가출이 너무도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피상적 이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그간 가출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던 것은 가출이 너무도 일반적인 현상이기에 이를 연구하는 일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과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한편으로는 무모한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낳은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앞서 가출 모티프 소설을 통시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분명 가출은 한국소설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내적 형식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개화기 소설인 「혈의 루」, 「은세계」, 「월하가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소설이 결말하고 있는, 문명개화를 통해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는 당위적 결론은 애당초 가출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철의 루』에서의 ‘김옥련’ ‘구완서’ ‘김관일’ 등의 가출이 있었기에 그들이 목적인 결말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무정』에서의 ‘영채’의 가출은 지지부진한 작품을 비로소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했다. 이렇듯 가출이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고 있는 작품은 이 외에도 다수가 있다. 『개척자』, 『환희』, 『흙』 등 대부분의 가출 모티프 소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가출의 정황은 과감히 생략되고 가출 이후의 생활이 중요시되는 작품도 있고, 가출하는 부분에서 작품이 끝나거나 가출이 작품의 시작인 작품도 있으나, 대부분의 근대소설에서 확인되는 바는 가출이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대부분의 작품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계기 자체가 작품의 결말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가출의 동인이 사회·역사적 지평과 서로 상호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점은 앞서 살핀 논의들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따라서 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단순한 현상이 아님은 확인되었다. 사회·역사적 의미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가출이 문학 속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시종을 관통하는 중요한 형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기영의 『고향』에서 ‘김희준’이나 ‘안갑숙’의 가출은 피상적으로 조혼에 반대하는 것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의 부모의 반대가 그들을 가출이라는 상황 속에 놓이게 만든다. 그것이 가출의 시작이라면 그러한 가출은 ‘희준’에게는 일본 유학이라는 지평을 열게 하며 ‘갑숙’에게는 노동자의 생활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계기는 작품의 말미에 ‘희준’과 ‘갑숙’의 사회에 대한 인식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며 결국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삶의 반열에 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결론이 되기 위한 동기가 바로 가출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은 귀향이 하나의 내

적 형식으로 보아지듯이 가출 또한 근대소설에 있어서 하나의 내적 형식으로 형식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출을 하나의 내적 형식으로 보았을 때, 가출 자체의 나아감이란 것이 뚜렷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간에 전망을 제시한다는 측면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망을 제시하는 가출 모티프 소설들은 리얼리즘 계열에 속하는 소설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리얼리즘에 반하는 외출 모티프는 모더니즘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 2. 가출 및 외출 모티프를 통해 본

###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상관관계

여기서는 가출 모티프를 살피면서 함께 고찰하게 된 외출 모티프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출이 집을 나가는 것이라 했을 때, 외출 또한 집을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출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했을 때, 외출 또한 마찬가지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간길이일 것인데, 구체적인 시간이 가출과 외출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한 조작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여하튼 외출은 가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물론 외출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전제가 있을 테지만, 단순한 외출이 영원한 가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가출과 외출은 엄연히 구별되어진다. 이렇듯 가출과 외출을 함께 놓고 보았을 경우, 거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외출 모티프가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날개」, 「마권」 그리고 본 연구범위에는 벗어나나 「비오는 길」 등이 있다. 단순히 이 몇 작품만을 두고 결론을 도출하기는 저어되나 무엇보다도 외출 모티프와 가출 모티프가 구별지어지는 것은 일단 장르적 특성이다. 가출은 그 성

격상 장편 소설에 유리하며 외출은 단편 소설에 유리하다. 이는 앞서 분류한 <표5>를 통해 면밀히 비교해 보면 확연해진다. 물론 단편소설에 나타나는 가출들이 몇 있으나, 여기서는 가출이 지속되지 못한다. 가출로써 끝나거나 가출과정이 과감히 생략되는 것이다. 반면에 외출은 단편 소설에 유리하다. 또한 특이한 것은 외출 자체가 그 작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사실 외출 자체가 작품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 장편의 생산을 불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시간으로 보나 거리로 보나 외출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출은 자신이 위치한 기반을 벗어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라면 외출은 돌아오는 데에 무게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사실 서로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미리 예정했던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문학적 현상으로 나타날 경우 그들은 기어코 다른 결과를 도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될 것이다.

바로 앞에서 대략적으로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를 비롯해서 외출 모티프를 살펴보았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가출이나 외출을 모두 집을 나가는 것으로 보고, 가출이 외출보다는 나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반면에 외출은 가출보다는 철저하게 돌아옴을 전제로 한 용어들이라고 보면, 그것들이 문학작품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앞서 분류한 <표5>를 통해 볼 것 같으면 가출은 대개 리얼리즘이라 일컫는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며, 외출은 그 반대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에서 가출 모티프와 관련해서 작품을 살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가출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에서 보이는 외출 모티프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이다. 李箱이나 박태원, 그리고 유항림 등의 소설에서 보이는 외출은 리얼리즘 계열 작품에서는 거의 확인 할 수 없다. 외출은 주로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에서 보여지며 이것이야말로 근대적 의미의 가출이 의미를 획득

하게 되는 부분이다. 바로 현실적인 모더니즘과 이상적인 리얼리즘과의 차이이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상적 리얼리즘의 가출성향과 세상을 바꾸고는 싶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지는 못하는 현실적 모더니즘의 외출 성향은 이 부분에서 뚜렷이 대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 유형 분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상당수의 가출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이다. 또한 그 긍정에 있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들의 의지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봉건적 명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들이 보기에 세상이 변하려면 가정을 비롯해서 사회와 국가가 변하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당연히 개인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변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집을 나가야 하며 많게는 국가를 벗어난 성찰이 수반되어야 했다. 따라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에서 보여지는 가출은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李箱의 「날개」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에서 보여지는 외출은 집을 벗어나기는 하나 다시금 집으로 회귀하는 식의 순환논리이며 이들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 가출을 하고는 싶으나 실제로는 실행하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표출되고 있다.

1) 구보는 자기에게 양행비(洋行費)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자기는 거의 완전히 행복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동경(東京)에라도—. 동경도 좋았다. 구보는 자기가 떠나온 뒤의 변한 동경이 보고 싶다 생각한다. 혹은 더 좀 가까운 데라도 좋았다. 지극히 가까운 데라도 좋았다. 오십 리 이내의 여정에 지나지 않더라도, 구보는, 조고만 슈트케이스를 들고 경성역에 섰을 때, 웅당 자기는 행복을 느끼리라 믿는다. 그것은 금전과 시간이 주는 행복이다. 구보에게는 언제든 여정에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시간의 준비가 있었다…….104)/(강조 인용자)

104)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 : 깊은샘, 1989, pp. 33~34.

2) 이렇게 밤늦게 어머니는 또 잠자지 않고 아들을 기다릴 게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또 한 가지의 근심을 가질 게다. 구보는 어머니의 조그만, 외로운, 슬픈 얼굴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제 자신 외로움과 또 슬픔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구보는 거의 외로운 어머니를 잊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응당, 온 하루,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였을 게다. 오오, 한없이 크고 또 슬픈 어머니의 사랑이여. 어버이에게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다시 자식에게로, 옮겨 가는 여인의 사랑이여—그러나 그 사랑은 자식에게로 옮겨 간 까닭에 그렇게도 힘있고 또 거룩한 것이 아니었을까.<sup>105)</sup>(강조 인용자)

1)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차여행에 대한 동경이다. 처음에는 동경(東京)을 동경하다가 다음에는 경성을 동경하나 결국은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만다. 그저 나가고 싶은 마음만 굴뚝같은 것이다. 문홍술은 이를 두고 '구보'의 근대적 삶의 함몰로 읽고 있으나 그가 실제로 기차여행을 할 수 없었던 데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06)</sup> 이는 2)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바다.

2)에서 하루종일 쏘다니다가 돌아온 '구보'. 인용문 다음에서 그는 '한 개의 생활'을 갖겠다고 외치고 있다. 직업과 아내가 없는 '구보'의 '한 개의 생활'이란 다른 아닌 소설 쓰기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저버릴 수 없고 기껏해야 소설 쓰기로 어머니를 보살피겠다는 심리다. 어머니는 '구보'에게 있어 치열한 현실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기제이자 소설 쓰기의 소극적 현실로 이끄는 안내자에 해당한다. 그것은 포즈였다. 유허림의 「마권」의 '만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포즈에 지나지 않는다. 딱히 할 일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끊임없이 바쁜 사람으로 보여야 했다. 그러하기에 그의 외출은 현실에서 이상을 쫓지만 다시금 현실이 되고 만다.

105) 위의 책, p. 75.

106) 문홍술, "1930년대 소설과 모더니즘—이상소설과 박태원소설을 중심으로", 김용직 편, 모더니즘 연구, 자유세계, 1993, pp. 301~306.

10월 7일. 허무의 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일이다. 무의 생활을 하는 것같이 보임은 세상에 대한 자기의 일이다. 무위의 생활로 보이는 때문에 나의 생활이 더욱 무위하게 되는 것 아닌가. 남이 뭐라든 나는 나대로 좃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용허할 이유가 있는가 분주한 척한다고 남을 속이는 짓은 결코 아니다. 나를 특별히 한가한 인종으로 차별하기를 중지함은 공평한 일이고 또 나의 당연한 요구다. 주의 (1) 큰 거리로 여럿이 짝지어 다니지 않을 것 (2) 걸음발 빨리 할 것 (3) 할 것이 없으면 우선 그리 반갑지도 않고 만나야 할 일도 없는 동무들이라도 차례로 한번씩 찾아감도 무방 (4) 단, 한 시간 이상의 장좌(長座)는 금물.107)/

(강조 인용자)

그렇다면 李箱의 경우는 어떠한가. 李箱의 인생도정은 한마디로 한 명의 가출자의 끊임없는 가출 순례기였다. 그의 가출을 여기에서 전부 다루기는 어렵다. 그의 전기적 측면의 경우 많은 부분 가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가출에 주목하기보다는 모더니즘 소설인 「날개」를 통해 '나'의 외출에 주목하는 것이다.

나는 불현듯이 거드랑이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 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108)/(강조 인용자)

---

107) 「마권」, p. 145.

108) 김윤식 편, 「날개」, 이상문학전집2(소설), 서울 : 문학사상사, 1991, p. 344.

몇 번의 외출이 있었고, 이 몇 번의 외출은 가출을 예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나'에게 있어서 욕망된 가출은 '오늘은 없는 이 날개'이며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희망하지만 실현시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일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오직 가혹한 운명의 채찍 아래서 생명의 노예가 되어 언제까지 살지도 모를 일생을 생각할 때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서 신음'하는 「비오는 길」<sup>109)</sup>의 '병일'이도 마찬가지다. '병일'의 삶이란 집과 직장을 오가는 것이 하루의 일과이며, 그 오가는 가운데 그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그의 삶의 전부다. 매일 매일이 그렇게 똑같은 현실 속에서 그는 오로지 자신만이 '지향없이 주저하는 고독감'을 느낀다고 술회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보자면 그렇게 지향없는 삶에서 도피하고 싶으나 여전히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의 발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외출이란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직장과 집을 오고가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다. 이러한 일상성 속에서 다른 욕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왜냐하면 일상은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촉매이기 때문이다.<sup>110)</sup>

희망과 목표를 향하여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물결 가운데서 오직 병일이 자기만이 지향없이 주저하는 고독감을 느낄 뿐이었다. 다만 일생의 목표를 그리 소홀하게 결절할 것이 아니라고 간신히 자기에게 귓속말을 하여 보는 것이었다. — 중략 — 이렇게 사진사를 행복자라고 생각하는 병일은 그러한 행복 관념 앞에 여지없이 굴복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행복 관념에 복종할 수 없었다. 그러면 자기는 마바리 역하는 노예와 같이 운명이 내리는 고역과 매가 자기에게는 한층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되

109) 「비 오는 길」은 1947년 작으로 본고가 상정한 연구범위에서는 벗어나나, 앞선 작품들과 동일한 의미의 층위라는 점에서 다루어 본 것이다.

110) 최혜실,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서울 : 국학자료원, 1994, p. 204.

었다.

병일은 이렇듯이 발걸음 하나나마 자신 있게 내짚을 수 있는 명일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오직 가혹한 운명의 채찍 아래서 생명의 노예가 되어 언제까지 살지도 모를 일생을 생각할 때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서 신음하듯이 전신에 땀이 흐르는 것이었다.<sup>111)</sup>(강조 인용자)

그에게 있어서 욕망의 도약은 '독서에 강행군을 하리라고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독서였다. 그것이 너무도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깨달으면서 그의 책읽기는 시들해지나, 일상의 극복을 원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sup>112)</sup> '병일'로서는 고작해야 다시금 일상에 안주하며 독서의 욕망을 되살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대소설에서 보이는 가출과 외출. 단정적으로 말해서 가출은 리얼리즘의 형식이며, 외출은 모더니즘의 형식이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상적 리얼리즘은 가출 성향으로 대표되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지는 못하는 현실적 모더니즘은 외출 성향으로 대표된다 하겠다.

### 3.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의 의미

가출이란 현실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바, 이는 사회질서 및 제도에 도전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회를 규지하는 규정력이라 보았을 경우 가출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 집, 우리 고향, 우리 국가라는 개념이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결코 부정적일 수만은 없다. 즉, 일제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위에서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게 보면 독립운동을 목적하는 가출 모티프도 확인되어야 하나, 알 수 없는 것은 그 같은 목적으로 가출하는 모습은 단

---

111) 「비 오는 길」, pp. 34~35.

112) 최혜실, 앞의 책, 같은 곳.

한 번의 경우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전적으로 당대의 가출이 긍정성을 띠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여기서 잠시 조선시대로 시선을 돌려보자. 조선대는 오로지 한 이념을 유교에 두었던 만큼이나 그 체재나 제도는 謹誠·嚴截한 勢가 있었던 것이다.<sup>113)</sup> 따라서 다른 것은 하등 생각할 수 없었다. 사회 전체가 유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것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함 속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대 소설의 출현은 '현실적 윤리'를 '소설적 윤리'와 구분 짓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출현한 고소설의 남녀주인공은 자유의지에 따른 애정의 현실을 위하여 '父命', '君命', '涖官命', '階級婚' 등 마땅히 聽從해야 할—肯定的 當爲—원칙을 거역하고, '不告', '죽음決行', '再嫁', '變服' 등 마땅히 禁制해야 할—否定的 當爲—원칙을 遂行, 시대가 요구하였던 윤리원칙에 背馳함으로써 曠世의 윤리적 반항아로 나타났던 것이다.<sup>114)</sup> 때문에 당대의 가출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 된다. 그 이유란 유교를 대신할 수 있는 철학이 그 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독자들이 그러한 소설을 읽고 많은 부분 거기에 동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찌지 못했던 것은 유교를 대신할 수 있는 철학적 명제의 부재에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가출은 더 이상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개화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미숙하나마 자본주의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앞서 얘기한 대로 결정적으로 봉건사회를 변화시켰던 근본적 동인이었다. 다시 말해 유교라는 철학적 명제가 무너져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비로소 삶을 규지했던 철학적 명제가 그 시효를 다하는 순간이 도래했던 것이다. 서구적인 변화 바람이 현해탄을 넘은 것이다.

유교가 아직도 경계, 심지어는 타파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는, 유교는 도덕사회의 구현을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권위, 규율, 기강, 그리고 획일성 등을 강조하는 전통인 반면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서구 근대

---

113) 김창룡, 우리 옛문학론, 서울 : 새문사, 1991, p. 7.

114) 위의 책, p. 65.

의 정치사상은 자유, 다원주의, 개방성, 개인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계몽주의가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교 전통이 중시하는 전통, 관습, 권위, 규율 등이었다.<sup>115)</sup>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유교가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고 사조가 들어오면서 공격받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그 영향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가출이 부정일 수만은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사회에서 용인되어질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이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기존의 가출을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로지 부정적인 이미지만이 아닌 긍정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가출이 긍정으로 해석된다고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앞서 살폈던 <표>1~5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가출이 사회 속에서 용인되고 유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은 한마디로 반봉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부터 해방까지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가출 소설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반봉건이었다.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화기라는 전환기적 현실에서 보이는 소명의식이라든지 근대적 개인의 발견이라든지 또 사회문제에 대한 뚜렷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변혁하기 위한 의지의 발현이나 전망의 상실 속에서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모두 개화기로 회귀한 시점에서 보여지는 가출의 일단이 모두 반봉건을 목적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사회·역사적 동인에 따른 가출이 밑바탕이 되는 가운데 보여지는 조혼이나 강제혼인 등을 거부하는 모습과 돈의 추구 등의 물질 지향성을 비롯해서 종교적 대립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모두가 반봉건이 그 초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 등에서 궁극적으로 확인되는 바는 가출이 바로 반봉건을 향한 하나의 방법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출은 성숙의 형식임과 동시에 미성숙을 밝히는 방식이라는<sup>116)</sup> 이중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것은 다

115)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한국 정치담론의 모색*, 서울 : 나남, 1998, p. 284.

116) 채호석, *앞의 책*, p. 373.

시 말하면 성숙했다면 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와 성숙하기 위해 가출한다는 논리사이의 대립이다. 현실 속에 머무르며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성숙의 방식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적 제도를 인정하는 한에서 가능한 것이며, 반대로 가출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한다는 논리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한국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가출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출 모티프 소설에서 가출이 갖는 의미는 반봉건을 향한 강한 열망의 발로였다. 이것은 가출 모티프 소설이 갖는 가출의 기능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능 위에서 반봉건을 목적했던 가출 소설들은 결국 하나의 귀착점으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숙한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망막한 현실을 뚫고 나오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가출의 형식이며 이러한 가출의 형식은 중국에는 성숙한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직접적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가출 모티프 소설에 나타나는 가출의 의미는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아의식의 눈뜸과 함께 이와 더불어 성숙한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제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두가 가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가출 모티프가 나타나는 소설이기에 그 가운데 보이는 가출이 바로 통과제의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고 하는 것이다.

##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 소설을 개화기부터 해방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가출이란 근대적 개인이 자유의지에 기반한 상태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할수행을 포기하고 집, 가족을 비롯해서 고향, 국가 등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출은 개인과 사회·역사적 문제가 끊임없는 조우 속에 있는 것인 만큼 근대적 의미의 가출이란 개인과 사회·역사적 문제가 결부된 틈바구니 속에서 보이는 '집 떠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가출의 개념은 사회적 역학 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가출의 개념이 이렇다고 했을 때 근대소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은 먼저 개화기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는 개화기라는 전환기적 현실 속에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가출을 야기하며,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는 봉건적 질서에 반하는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 대두함으로써 그러한 개인의 자아의식의 문제가 가출을 만들어 내고 있고,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의 눈뜸과 더불어 그러한 사회의 제도적 모순에 반발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변혁의지가 가출을 양산해 내고 있다. 끝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는 작가들이 겪어야만 했던 전망의 상실과 그러한 상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작가들에게 있어서 상상적 도피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가출—작가들이 그려내는 이 시기의 거의 모든 소설의 공간배경이 개화기적 공간으로 회귀하고 있다—과 함께 그 가운데 작품 내부에서 전망을 제시하려는 노력들은 반봉건을 지향하는 가출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가출의 사회·역사적 동인 위에서 나타나는 가출 현상들과 그러한 가출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가치들은 조혼이나 강제 혼인에 반하는 모습 등의 반봉건성의 지향과 돈을 비롯한 물질 지향성 때문에 가출하며

그러한 물질 지향성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편입적 세계관의 추구이다. 또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가출은 근대적 개인과 초근대적 개인의 이중적인 면모로 나타난다. 끝으로 전형기에 있어서 개화 공간으로의 소설적 공간 이동은 전망의 상실 속에서 성찰과 모색을 위한 가출을 통해 성숙한 근대적 자아성장을 목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출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근대 소설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귀향만큼이나 중요한 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가출을 검토하며 함께 다루어본 외출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으로 대별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대소설에 있어서 가출은 리얼리즘의 형식이며, 외출은 모더니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상적 리얼리즘은 가출 성향으로 대표되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지는 못하는 현실적 모더니즘은 외출 성향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가출은 1)반봉건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2)성숙한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제의의 형식이었다.

끝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해방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 나타나는 가출 모티프 소설들도 연구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 參考文獻

### ◆ 자 료

강진호 外, 이태준문학전집(1~4, 7), 서울 : 깊은샘, 1995.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홍길동전 · 전우치전 · 서화담전(한국고전문학전집25), 1996.

곽 근 편, 최서해 전집(상)·(하),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7.

권영민 外, 염상섭 전집(1~5, 7~12, 14), 서울 : 민음사, 1987.

김성수 편, 카프대표소설선I-II, 서울 : 사계절, 1988.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2(소설), 서울 : 문학사상사, 1991.

—,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1~4), 서울 : 한국문학사, 1997.

김윤식 外, 신소설·번안(역) 소설3·7(한국개화기문학총서),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8

김재용 편, 이기영 선집(1~4, 12), 서울 : 풀빛, 1989.

류보선 外, 한국소설문학대계(1~26), 서울 : (두산)동아, 1995.

이재선 · 김시대 편, 현진건 전집(1~4), 서울 : 문학과비평사, 1988.

이재선 편, 韓末의 新聞小說, 서울 : 한국일보사, 1975.

임헌영 · 오현주 엮음, 강경애 전집1, 서울 : 열사람, 1992.

전신재 편, (원본)김유정 전집, 서울 : 강, 1997.

주종연 外, 나도향 전집(상)·(하), 서울 : 집문당, 1988.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 : 깊은샘, 1989.

백 철 外, 이효석 · 유진오(한국문학전집6), 서울 : 삼성당, 1983.

### ◆ 논 문

강진호, “‘구인회’의 문학적 의미와 성격-이태준과 박태원을 중심으로”, 강

- 진호 外, 박태원 소설 연구, 깊은샘, 1995.
- 권성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소설 연구-반영이론적 해석을 중심으로”,  
모더니티와 타자의 현상학, 솔, 1999.
- 김민정, “여학생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석사), 1999.
- 김석봉, “<혈의 루>에 나타난 근대화 담론의 발현양상 연구”, 한국학보,  
통권94호, 일지사, 1999.
- 김영근, “일제하 서울의 근대적 대중교통수단”, 한국학보, 통권98호, 일지사,  
2000.
- 김주연, “근대문학 기점 논의의 문제점”, 文學批評論, 열화당, 1974.
- 김용직, “근대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 통권30호, 1973.
- 류보선, “이상李箱과 어머니, 근대와 전근대-박태원 소설의 두 좌표”, 강진  
호 外, 박태원 소설 연구, 깊은샘, 1995.
- 신영숙, “日帝下 新女性の 戀愛 · 結婚問題”, 한국학보, 통권45호, 일지사,  
1986.
- 안경달,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의 원인분석과 학교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석사), 1993.
- 염무웅, “식민지문학관의 극복문제”, 창작과비평, 통권59호, 1978.
- 오세영, “근대시 · 현대시의 개념과 기점”, 김용직 外, 한국 현대시사의 쟁  
점, 시와시학사, 1992.
- 이대규, “한국 근대 귀향소설 연구”, 전북대학교(석사), 1994.
- 이상경, “강경애론-30년대의 궁핍형소설고”, 한국학보, 통권37호, 일지사,  
1984.
- 이옥란 外, “부산지역 여성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 및 그 대책  
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8.
- 이유경, “중학교 남학생의 가출 특징 및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 1998.

- 임기순, “집단상담이 가출 경험 학생의 불안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석사), 1998.
- 최원식, “「血의 淚」小考”, 한국학보, 통권36호, 일지사, 1984.
- 한기형,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유통 환경의 영향”, 한국학보, 통권84호, 일지사, 1996.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개화기에 있어서 한국자본주의의 제문제”, 한국학논집, 제6輯, 1984.
- 함재봉, “모더니티와 유교-근대 규율사회론을 중심으로”, 탈근대와 유교-한국정치담론의 모색, 나남, 1992.
- Habermas, Jürgen., 박거음 역, “모더니티-미완성의 계획”,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문화과학사, 1989.
- Jameson, Fredric.,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Postmodernisms - An Introductory Anthology*, Chung-Ho Chung & So-Young Lee, Korea : Hanshin Publishing Co., 1990.

#### ◆ 저 서

- 김동환, 한국소설의 내적 형식, 서울 : 태학사, 1996.
- 김만수, 문학의 존재영역, 서울 : 세계사, 1994.
-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994.
-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 이광수와 그의 시대1·2, 서울 : 솔, 1999.
- , 임화 연구, 서울 : 문학사상사, 1989.
- ,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서울 : 일지사, 1976.
- , 한국근대문학 양식논고,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0.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서울 : 민음사, 1973.

- 김윤식 · 정호웅, 韓國小說史, 서울 : 예하, 1993.
- 김재용 外, 한국근대 민족문학사, 서울 : 한길사, 1993.
- 김창룡, 우리 옛문학론, 서울 : 새문사, 1991.
- 김태준, 朝鮮小說史, 서울 : 예문, 1989.
-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 학지사, 1998.
- 김 현, 문학사회학, 서울 : 민음사, 1983.
- 김형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연구, 대전 :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9.
- 공종구, 한국현대 소설론, 서울 : 국학자료원, 1994.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 책세상, 2000.
- 권보드레,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서울 : 소명, 2000.
-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작품연표1,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인의생활과풍속(상)·(하),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5.
-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강좌(상)·(하),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5.
- 박종성, 권력과 매춘, 서울 : 인간사랑, 1996.
- 백 철, 朝鮮新文學思潮史, 서울 : 백양당, 1947.
- 佛敎社會文化研究所 편, 現代韓國佛敎論, 서울 : 여래, 1983.
- 서광운, 한국 신문소설사, 서울 : 해돋이, 1993.
- 서석준, 현대소설의 아비상실, 서울 : 시학사, 1992.
- 신상성 · 박충록, 한국 통일문학사론, 서울 : 아사달의 꽃, 1994.
- 오한진, 독일 교양소설 연구,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9.
- 유종호 外, 현대 한국문학 100년, 서울 : 민음사, 1999.
- 이능화, 이재곤 옮김, 조선해어화사, 서울 : 동문선, 1992.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이정숙, 失郷小說研究, 서울 : 한샘, 1989.
- 임헌영 · 김재용, 한국문학명작사전, 서울 : 한길사, 1991.
- 임 화, 임규찬 · 한진일 편, 신문학사, 서울 : 한길사, 1993.
- 전광식, 고향,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5(3판), 서울 : 지식산업사, 1994.
- 정정호 · 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 문화과학사, 1989.
-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서울 : 성문각, 1969.
- 조지훈, 한국학연구, 서울 : 나남, 1996.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 책세상, 2000.
-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 또하나의문화, 1997.
- 채호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서울 : 소명, 2000.
-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서울 : 삼성문화재단, 1972.
- , 조선상식문답(속편), 서울 : 삼성문화재단, 1972.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82.
- 최혜실,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서울 : 국학자료원, 1994.
- 홍일식,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연구, 서울 : 열화당, 1980.
- 황상익 편저,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 서울 : 한울림, 1998.
- 炳谷行人, 김경원 역,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서울 : 이산, 1999.
- 炳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서울 : 민음사, 1997.
- 丸山眞男, 김석근 역, 일본의 사상, 서울 : 한길사, 1998.
- 丸山眞男 · 加藤周一,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 이산, 2000.
- Benjamin, Walter., 차봉희 편역, 現代社會와 예술,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0.
- Childers, Joseph. · Hentzi, Gary., 황종연 역,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 사전, 서울 : 문학동네, 1999.
- Cole, Stephen., 여균동 편역,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서울 : 미래사, 1982.
- Easthope, Antony.,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서울 : 현대미학사, 1994.
- Engels, F., 김대웅 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서울 : 아침, 1987.
- Ferdinand de Saussure, 최승언 역, 일반 언어학 강의, 서울 : 민음사,

1990.

Foucault, M.,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서울 : 나남, 1990.

Forster, E. M.,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서울 : 문예출판사, 1975.

Freud, Sigmund., 임홍빈 · 홍혜경 역, *정신분석강의(상)·(하)*, 열린책들, 1997.

Horkheimer, Max. · Adorno, Theodor W.,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서울 : 문예출판사, 1995.

Hunt, Lynn., 조한욱 역,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서울 : 소나무, 1996.

Hunt, Lynn., 조한욱 역,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서울 : 책세상, 1996.

Kant, Immanuel.,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울 : 서광사, 1992.

Lukács, Georg., 홍성완 역, *소설의 이론*, 서울 : 심설당, 1985

Marx, K., 김수행 역, *자본론(I·II)*, 서울 : 비봉출판사, 1989.

Nietzsche, F., 송 무 역, *우상의 황혼/반 그리스도*, 서울 : 청하, 1984.

Poggi, Gianfranco., 박상섭 역, *근대국가의 발전*, 서울 : 민음사, 1995.

Robert, Marthe., 김치수 · 이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9.

Schmidt, Walter., 강대석 역, *독일근대사*, 서울 : 한길사, 1994.

Stolnitz, Jerome., 오병남 역,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 이론과실천, 1991.

Watt, Ian., 전철민 역, *소설의 발생*, 서울 : 열린책들, 1988.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England : Basil Blackwell Ltd, 1983.

Gablik, Suzi., *Has Modernism Failed?*, America : Thames and Hudson Ltd, 1984.

Peck, John. · Coyle, Martin., *Literary Terms And Criticism*, America : Macmillan Education Ltd, 1984.

Rice, Philip. · Waugh, Patricia., *Modern Literary Theory*, England : Arnold, a member of the Hodder Headline Group, 1989.

## <ABSTRACT>

### **A study on a motive of leaving-home appeared in the Korean modern novels**

Leem Hyoung-Mo

Major in Korean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considered the novels of leaving-home motive that appeared in developmental processes of the Korean modern fictions from enlightened age to liberation of Korea chronologically. Generally, the leaving-home has meaning of free themselves from home land including their home and family to abandon their role regardless of the old and young in accordance with free intentions of a modern individual. Also the leaving-home in modern meaning is defined as the leaving-home appeared between the tight fixes linked with historical problems because it come to continually encounter with individual, social and historical problems. This thesis defines that the concept of the leaving-home is decided its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a social mechanic relation.

The social and historical motive of the leaving-home which appeared the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Korean modern novels described the leaving-home in accordance with a sense of mission to

save their country in a reality of turning point called the enlightened age from enlightened age to the early days of 1910s, which made the leaving-home due to such an individual problem of self-consciousness when the self-consciousness as the modern individual against the feudal orders was on the rise from 1910s to the beginning of 1920s. The novels was being produced a lot of theme of leaving-home due to the intention for a social reform with reaction against such a conflict of social system and realistic cognizance to a social problem from the middle of 1920s to the latter half of 1920s. Lastly, Their efforts showed a new view without a breakdown from the loss of a view which the writers had to experienced, that is, which showed a view within the works among a spiritual leaving-home corresponding to their imaginable escape appeared as the leaving-home toward anti-feudality for the writers. - A spatial background of most novels which described by writers in its day has returned into the space of the enlightened age.-

Firstly, The values which pursued by the novel's protagonists finally in such a leaving-home conditions showed the anti-feudal type against the early marriage or a forced marriage, as well as materialism including money showed the pursuance of the admissible world view toward the better life. The leaving-home due to a religious conflict showed a dual appearance of modern individual and earliest-modern individual. Finally, In the transitional period the spatial movement of novel as the enlightened space is to make a self-growth of grown modern through the leaving-home so as to make a self-examination and exploring from the loss of view.

To our knowledge through this discussion the leaving-home is as

a important inter-mode as returning-home in a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Korean modern novels. Also, "the Not at home" that this thesis have treated and investigated is made a general classification into each realism and modernism. Additionally, We could say that the leaving-home is mode of realism, however the Not at home is .the mode of modernism in a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modern novels. An ideal realism is representative of disposition to make a the leaving-home to change the society. But a real modernism which is incapable the changes of the society really appeared a disposition to make the leaving-home. Lastly, The leaving-home appeared in the Korean modern novels **1. was an resistant activity against feudality, 2. was a pass mode so as to revive as a modern individual of growth.**□